

## 위대한 우리 인민이 쟁취한 빛나는 승리 전국비상방역총화회의의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전국비상방역총화회의에서 중요연설을 하시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이 소집한 전국비상방역총화회의가 8월 10일 수도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인 김정은 원수님께서 회의를 지도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회의장 주석단에 등단하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책임진 중대한 사명감을 안고서 미래에 대한 숭고한 사랑과 헌신으로 불면불휴의 날과달을 이어가시며 조선로동당과 국가, 인민을 방역대전의 종국적 승리로 즐기게 이끄시는 불세출의 령도자 김정은 원수님을 우리러 열광의 환호를 터쳐올리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장중하게 주악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최대비상방역전의 승리를 선포하는 력사적인 총화회의에서 중요연설을 하시었다.

김정은 원수님께서서는 최대비상방역체계가 가동한 이후 지금까지의 방역상황을 개괄 분석하시고 당중앙위원회와 공화국정부를 대표하여 령내에 류입되었던 신형코로나

비루스를 박멸하고 인민들의 생명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최대비상방역전에서 승리를 쟁취하였음을 엄숙히 선포하시였으며 이번 방역대전을 승리적으로 결속한 온 나라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에게 열렬한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보내시었다.

김정은 원수님께서서는 우리가 이룩한 값비싼 승리는 우리당 방역정책의 승리이고 우리 국가의 위기대처전략의 승리이며 우리 인민특유의 강인성과 일심단결의 승리이고 우리식 사회주의의 제도적우월성이 안아온 위대한 승리라고 확인하시면서 엄청난 보전위기로부러 국가와 인민의 안녕을 수호하기 위한 최대비상방역전의



승리를 앞당김에 힘과 지혜와 정성을 다 바치며 분투, 활약한 전국의 방역부문, 보건부문 일군들과 군의부문 전투원들을 높이 평가하시었다.

김정은 원수님께서서는 비상위기상황하에서 계획된 올해의 사업들이 중단없이 추진되고 전반적인 국가사업의 원활성을 보장한 귀중한 성과와 경험, 교훈에 대하여 분석총화하시고 이번 최대비상방역전에서의 승리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 세계적인 보건위기가 종식될 때까지 방역장벽을 철통같이 견지하며 방역사업을 강도높이 진행하는데서 나서는 원칙과 중요과업

들을 천명하시었다.

김정은 원수님께서서는 우리의 투쟁과 미래에 대한 확고한 신심과 락관을 가지고 국가와 인민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담보하며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력사적대업을 힘있게 다그쳐 나아가자고 호소하시면서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인민모두의 귀체안녕과 온 나라 가정의 평안을 축원하시었다.

김정은 원수님께서 연설을 마치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인민의 행복과 안녕을 위하여 끝까지 분투할 결사의 의지를 지니시고 첨예한 방역대전을 진두지휘하시며 청사에 길이 빛날 승리를 안아오신 경애하는

세계보건사가 알지 못하는 기적이라고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을 수위로 하는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이 우리 경내에 악성 비루스가 류입되는 최중대 비상사건이 발생한 초기부터 사실상의 방역총사령부로서 방역전쟁을 철두철미 인민보위, 인민사수의 성전으로 전환시키고 나라의 인적, 물질, 과학기술력량을 방역사업에 총지향시켜 대승으로 령도하여온데 대하여 언급하시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방역대전의 경이적인 성과는 당중앙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력과 당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드는 우리 인민이 쟁취한 빛나는 승리이라고 하면서 사상초유의 방역위기속에서 조국과 인민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지켜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 온 나라 전체 인민들의 한결같은 념원을 담아 가장 뜨거운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 드리었다.

김정은 원수님을 따르는 길에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다는 억척불변의 신념을 간직하고 당중앙이 제시한 새로운 방역정책방향과 과업들을 실천에 철저히 구

현하며 우리식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 발전을 위한 투쟁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우리 국가의 존엄과 위상을 만방에 떨쳐 나갈 결의들을 표명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지도밑에 진행된 전국비상방역총화회의는 위대한 당중앙의 두리에 일심일체로 뭉쳐 력사의 그 어떤 격난도 정면돌파하며 우리식 사회주의의 휘황한 미래를 향해 즐기게 전진하는 영웅조선의 힘, 영웅조선의 정신을 다시한번 과시한 승리자들의 대화합으로, 국가방역능력건설의 새로운 발전단계를 열어놓은 중요한 계기로 되었다.

본사기자





# 방역전쟁에서의 승리를 공고히 하여 국가와 인민의 안전을 더욱 믿음직하게 담보하자

## 전국 비상방역총화회의에서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연설

주제 111 (2022)년 8월 10일

전국의 방역 및 보건부문 일군들!  
국경과 전역, 해안지대에 파견된 당대표들과 군부 대지휘관동무들!  
국가비상방역사령부와 비상방역사단, 련대, 대대의 지휘성원동무들!

방역사업에 기여한 지원자 여러분!  
천애하는 동지들!  
그리도 간고했던 방역전쟁이 바야흐로 종식되고 오늘 우리는 마침내 승리를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공화국영토에 악성전염병이 침습한 때로부터는 100여일, 전염병이 전국적범위로 급속히 확산되는 것에 저항하여 우리 나라에서의 방역사업을 최대비상방역체제로 이행시킨 때로부터는 91일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기간 전당, 전국, 전민은 강 의지와 필사적인 노력으로써 엄혹한 전염병위기를 라게하고 방역체제를 안정회복시키는데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우리 당과 정부는 현 방역상황을 평가하고 과학연구부문이 제출한 구체적인 분석자료에 근거하여 나라에 조성되었던 악성전염병위기가 완전히 해소되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최대비상방역체제가 가동한 이후 지금까지의 상황을 총괄해보면 악성전염병이 전파되기 시작한 초기 수십만명에 달하였던 하루유역자수가 한달후에는 9만명이하로 줄어들었으며 지속적인 감소세를 유지하다가 7월 29일부터는 악성비루스감염자도 의심되는 유역자가 한명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 기간 사망자는 모두 74명으로서 치명률에 있어서 세계보건계의 전무후무한 기적으로 될 매우 낮은 수치가 기록되었습니다.

전국적인 감염자발생수는 어제까지 쉰 12일간 경을 기록하였으며 마지막완쾌자가 보고된 때로부터도 7일이 지났습니다.

이로써 우리 령토를 최단기간내에 악성비루스가 없는 청결지역으로 만들는데 대한 우리의 비상방역투쟁의 목표가 달성되었습니다.

국내에서 악성전염병의 재발을 근원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마련된것과 방역위기종식을 확신할 수 있는 유력한 근거로 됩니다.

우선 마지막감염자들이 모두 완쾌되고 핵산검사에 서도 음성으로 판명되었으므로 우리 나라에서 신형코로나비루스의 전염원이 완전히 제거되었으며 전사회적으로 방역규정준수기풍이 철저히 확립되고 소독사업이 더욱 강화되어 악성비루스가 전파될수 있는 각이한 경로들이 차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에 스텔스오미크론변이비루스가 류입된 경로를 과학적으로 최종확증한데 따라 이에 대한 차단과 봉쇄, 감시가 보다 강화되고 오물들을 발견하는 즉시 수거, 소각, 매몰처리하는 질서와 수입물 자들에 대한 방역학적안전성을 담보하는 사업이 심화되어 외부로부터 그 어떤 변이비루스도 류입되지 못하게 한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근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기간 악성전염병확진자가 모두 스텔스오미크론 변이비루스 《BA.2》에 의한 감염자로 판명됨으로써 그 어떤 새로운 변이형이나 아형도 발생하거나 들어 오지 않았다는것이 확증되었습니다.

제반 사실로 보아 우리 나라에 조성되었던 악성 전염병사태가 종식되었음을 충분히 확인할수 있습니다.

나는 우리 국가, 우리 인민이 사상초유의 보건위기를 이겨내고 끝끝내 되찾은 안정과 평온을 기쁘게 확인하는 이 시각 당중앙위원회와 공화국정부를 대표하여 령내에 류입되었던 신형코로나비루스를 박멸하고 인민들의 생명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최대비상방역전에서 승리를 쟁취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전세계를 파국적인 상황에 몰아넣은 세계공공분야의 최고의 위험사태로부터 국가와 인민의 안녕을 믿음직하게 지키고 우리가 직면했던 가장 중대하고 위협적인 도전을 이처럼 짧은 기간에 소거해버린것은 또 하나의 빛나는 승리이며 우리 당과 국가와 인민의 위대한 힘을 다시한번 만천하에 과시한 력사적사변으로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당과 정부는 지난 5월 12일부터 가동시켰던 최대비상방역체제를 오늘부터 긴장강화된 정상방역체제로 방역등급을 낮추도록 하였습니다.

나는 이 자리를 빌어 불굴의 신념과 강 의한 인내, 진정한 단결로써 안위존망의 사태에서 자기자신과 모두의 안녕과 평온,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웃음을 지켜내고 이번 방역대전을 승리적으로 결속한 온 나라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동지들!  
기쁨과 긍지가 없없이 차넘치는 시각이지만 왜서인지 이 자리에 서고보니 여기에 오기까지 그리도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던 형언할수 없는 중압감과 책임

감이 다시금 되새겨집니다. 지나온 91일간의 우리의 투쟁영역에서 결코 길지 않은 나날이지만 하루하루가 1년, 10년 맞잡이로 느껴지는 숨막히는 긴장의 련속이었으며 말그대로 준엄한 전쟁이었습니다.

세계적인 대류행병의 발생초기부터 초특급의 비상방역장벽을 구축하고 완강히 견지하면서 2년나마 평온을 유지해오던 우리 나라에 악성비루스가 류입되었다는 현실앞에 솔직히 심정은 착잡하였습니다.

그것은 나에게서는 목숨을 내걸고라도 무조건 지켜야 할 인민이 있었기때문입니다. 기쁨 때도, 어려울 때도 언제나 나를 지지해주고 힘들 때조차 나를 다잡아주고 항상 떠밀어 일으켜 세워주는 《인민》이라는 존재는 나에게 있어서 단 한명도 절대로 잃을수 없는, 잃어서는 안될 피와 살점과도 같았습니다.

하루에도 수십만명씩 감염자가 급증하는 눈앞의 위기는 나라의 운명이 이대로 결판나는가 하는 최악의 경우까지도 내다보며 최대로 각성하고 결사적으로 분발해야만 하는 매우 다급한 국가최대의 위기사태였습니다.

방역기반과 보건토대가 취약하고 방역경험도 없는 형편에서 국가의 안전과 수천만 인민의 생명을 직접 위협하는 횡포한 악성비루스와의 전쟁을 이기자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1분초가 다급한 시간쟁취전에서 이에 대한 반응력조차 없었던 국가기관들을 기민하게 움직이고 정확한 기능과 역할을 하게 만들자면 어떻게 할것인지, 또 이로 인하여 국가의 전반사업과 인민생활에 겹쳐든 극난한 시련의 국면을 역전시키자면 과연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할것인지 하는 이 무거운 력사적과제는 우리 당의 령도력을 다시한번 맹목하게 검증하는 시금석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처음 맞닥뜨린 이러한 극난안에서도 우리 당은 자기 인민의 하늘같은 믿음을 깊이 간직하고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자기 본연의 자세와 립장에 충실하였으며 자기 특유의 결단안정이고 강력한 정치적지도를 정확히 발휘하면서 국가의 방역기강을 다졌으며 비루스박멸투쟁을 승리로 조지령도하였습니다.

동지들!  
당과 인민이 혈연적으로 결합된 굳건한 믿음은 위대한 기적을 낳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방역전쟁에서의 승리를 선포하게 된 엄연한 현실은 우리의 정책이 옳았고 우리의 투쟁방침이 정확하였다는것을 명백히 실증해주고 있습니다. 다시말하여 우리가 이룩한 값비싼 승리는 우리당 방역정책의 승리이고 우리 국가의 위기대처전략의 승리이며 우리 인민특유의 강인성과 일심단결의 승리이고 우리식 사회주의의 제도적우월성이 안아온 위대한 승리입니다.

나는 이것을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확인할수 있습니다. 언제나 인민을 첫자리에 놓고 그들의 편과 립장에서, 그들의 리익에 부합되는 정책을 채택하고 실시하는것은 우리 당의 일관한 활동원칙입니다. 악성전염병이 령내에 류입된 즉시 우리 당과 정부는 최대비상방역체제를 가동하는것과 함께 전염병발생상황관리와 전파근원차단, 인민생활안정을 비롯하여 매우 적시적이고 위기를 라게할수 있는 최선의 방책을 강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옳바른 정책이라 할지라도 그 집행을 담보할수 있는 전인민적인 고도의 조직성과 자각적일치성, 의식적분발이 없는 완벽한 결과를 기대할수 없는것입니다. 결코 쉽게는 쟁취할수 없었던 최대비상방역전에서의 승리에 대하여 생각할 때 나는 당과 정부의 방역정책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공감하며 일치단결로써 받아들여준 우리 인민들의 수고에 대하여 제일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막대한 손실을 감수하며 각방으로 겹겹이 구축해놓은 방역장벽에 빈틈이 생겨 일단 우리 령내에 악성비루스가 류입, 확산된 긴급형세에서 급선무로 나선것은 전염병전과상황을 안정적으로 억제, 관리하며 감염자들을 빨리 치유시켜 전과근원을 최단기간내에 없애는것이었습니다.

그러하여 부득이하게 전국적으로 지역별차단봉쇄와 단위별격제 조치를 강력히 실시하는 한편 전주민집중검검검진을 엄격히 진행하여 유역자들을 빠짐없이 찾아 격리시켜 치료하는 사업들을 동시에 추진하였습니다.

이것은 나라의 일부분이나 몇개 지역이 아니라 전방역에서 모든 레앙과 이동이 금지되고 정상적인 사업과 활동의 불동이 파괴되어 국가사업뿐 아니라 매 가정, 매 공민들의 생활에서 이전보다 난관과 애로가 몇배로 가중된다는것을 의미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민들은 비상방역과 관련하여 시달되는 모든 규정과 지시를 우리 당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나라를 위한 예속사업, 자기 가정과 자신을 위

한 응답한 의무, 본분으로 간주하면서 자각적으로, 량심적으로 준수하고 무조건 실행하는 훌륭한 기풍을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공민들이 일신상의 문제와 가정사를 뒤로 미루는것을 혼연히 여기었으며 사소한 동요나 나약성, 비판과 공포도 없이 방역승리에 대한 신심과 락관에 넘쳐 특유의 강인성을 더욱 뚜렷이 발휘하였습니다.

이런 인민들을 하루빨리, 한시바삐 악성병마의 위협에서 구원하기 위해 당과 정부는 국가예비약품을 해제하여 전국에 공급하는 사업을 최우선 긴급추진함으로써 모든 유역자들에게 필요한 약품이 가닿을 수 있게 하였으며 과학적인 치료전술과 방법을 확립하고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결과 우리는 최대비상방역체제를 가동한지 5일째부터는 전국적인 전염병확산세를 억제, 관리가능한 안정적인 국면으로 돌려세우고 비상방역전의 승세를 확고히 틀어쥘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과 정부는 방역상황의 변화에 따라 인민들의 불편과 고통을 덜어주고 국가사업과 경제활동에 미치는 부정적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방역정책과 지침을 능동적으로,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사업도 진행하였습니다.

최대비상방역기간을 돌이켜보면 봉쇄와 박멸투쟁을 병행하고 국가적으로 약품보장과 공급대책을 강하게 세운것 그리고 방역사업에서 엄격성에 과학성을 결합하고 주민생활보장대책을 적극적으로 따라세운것이 악성비루스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방역대승을 앞당기는데서 큰 의의가 있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것은 우리 인민만이 가지고있는 고도의 조직성과 자각적일치성이 당과 정부의 옳바른 방역정책과 지침을 철저히 집행과 완벽한 결과에로 이어지게 하였다는데 있습니다.

당과 정부에 대한 신뢰심에 있어서나 나라사정에 대한 리해심에 있어서 그리고 공민적의무에 대한 성실성과 곤난을 이겨내는 인내력에 있어서 우리 인민만큼 훌륭한 인민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완전정종을 한차례도 실시하지 않은 우리 나라에서 이 기풍을 부리던 전염병확산사태를 이처럼 짧은 기간에 극복하고 방역안전을 회복하여 전국을 또다시 깨끗한 비루스청결지역으로 만든것은 세계보건계에 특기할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것은 명백히 우리의 인민적이며 과학적인 방역정책과 이를 집행함에 일치하게 호응해나선 전민합세의 위대한 승리로 됩니다.

최대비상방역전에서의 승리는 또한 우리 사회주의제도특유의 우월성과 위력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습니다.

우리 나라는 전체 인민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 사상의지적으로 통일단결되어있기때문에 그 어떤 위기가 발생한다고 해도 전국, 전민이 일시에 떨쳐일어나 강력히 대처할수 있는 무궁무진한 힘을 가지고있습니다.

나라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가 국가의 결정지시를 절대적으로 받들고 일사불란하게 보조를 맞추는 것이야말로 우리 사회특유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제도적우월성입니다.

여기에 하나는 전체를 위하고 전체는 하나를 위하는 집단주의정신과 남이 아파하면 같이 아파하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위해주는 덕과 정이 전사회적으로 지배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우리의 제도는 남들이 가질수 없는 불가항력을 발휘하게 되는것입니다.

이런 제도적바탕이 있기에 최대비상방역체제로 이행할데 대한 당과 정부의 결정이 시달된 즉시 전국을 시, 군별로 봉쇄하고 사업단위, 생산단위, 생활단위별로 격려는 조치가 철저히 실행되었으며 보다 강도높은 방역규율과 질서, 기강이 확립되어 급후방역전에서 전략적주도권을 철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조직들과 정권기관들이 총발동되어 외파로 떨어진 초소와 가정들까지 약품을 보장하면서 열병에 걸린 사람들의 건강을 돌보았으며 봉쇄기간 각종 이동봉사대를 내오고 주민들의 생활상불편을 최대한 덜어준것도 우리 제도가 아니고서는 상상할수 없는 일입니다.

이번에 우리 나라 보건제도의 인민적성격과 생활력이 남김없이 발휘되었습니다.

비록 우리 보건의 물질기술적토대는 미약하지만 이미 확립된 우리 식의 의료봉사체계가 효과적으로 가동함으로써 방대한 방역과제, 치료과제가 성과적으로 달성될수 있었습니다.

의사담당구역제와 구급의료봉사체계, 먼거리로 봉사체제와 같은 인민적이며 선진적인 의료봉사제도도 도래하여 유역자약과 전주민검검검사업이 매일 진행되고 격리 및 치료가 정확히 실시된것은 전국적범위에서 방역체제의 안정화를 획득하고 감염근원을 없애는데 커다란 작용을 하였습니다. 방역전쟁의 승리를 안아오는데서 제일 수고를 많

이 하고 공적을 세운것은 방역부문과 보건부문의 일군들입니다.

실사 본연의 임무라 할지라도 위험한 악성전염병과의 투쟁에서 일선참호에 서있는 방역부문, 보건부문 일군들의 부담과 고생이 제일 컸다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의 방역, 보건전사들은 당과 국가가 맡겨준 인민의 생명수호를 위한 방역전에 서슴없이 온몸을 내대고 누구도 몰려서거나 주저않지 않았으며 자기 임무에 끝까지 충실하였습니다.

인간에 대한 뜨거운 사랑, 환자들을 위해 자기를 바치는 무한한 희생정신, 혁명임무에 대한 높은 책임감과 성실성이 우리 방역, 보건부문 일군들이 자기를 지명하고 악성병마와의 싸움에 헌신분투할수 있게 한 정신적힘이었습니다.

최대비상방역기간 전국적으로 주민세대들과 인민들에 대한 검병검진을 진행하고 유역자들을 찾아내어 완쾌시키는 사업에 매일 보건일군 7만 1,200여명, 위생열성일군 114만 8,000여명이 동원되고 수천명의 보건부원정력들이 자원으로 참가하였으며 이들모두가 이러한 정신으로 애써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당중앙군사위원회 특별명령으로 수도에 파견된 인민군대 군의부원 전투원들이 인민사수의 전방에서 특출한 공훈을 세웠습니다.

당의 신임과 기대에 무조건적으로 보답하려는 충성의 열정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으로 총만된 군의부원 전투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하여 수도의 약품공급이 안정되고 전염병형세가 역전되었을뿐 아니라 당에 대한 인민의 절대적신뢰와 군민일치의 고귀한 전통이 보외되었습니다.

나는 군의부원 전투원들이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당중앙의 명령을 훌륭히 관철한데 대해서와 수도 시민들이 우리 군대를 자기 생명의 은인으로, 친혈육으로 진실하게 간주하고있는데 대하여 매우 만족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나라가 이번 보건위기속에서 감염자수에 비해 사망자수가 특별히 적은것은 우리 방역, 보건일군들이 한계를 초월하는 노력과 헌신으로 당과 정부의 방역정책, 보건정책을 결사관철하였기때문입니다.

전국의 방역, 보건일군들은 평소의 몇십배에 달하는 과중한 부담속에서도 매일 24시간 방역초소와 치료초소를 떠나지 않고 심신을 강리히 바치었습니다.

당과 인민에게 충직한 우리의 보건전사들속에는 앓고있는 자기 자식과 남편을 돌보기에 앞서 말은 주민세대들과 환자들에게 정성을 쏟아부은 의사, 간호원들, 자체로 부축되는 의약품을 마련하고 생활필수품까지 준비하여 환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준 의료일군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더욱 감동을 금할수 없는것은 자기의 병세를 잘 알면서도 인간생명의 수호자로서의 본분을 먼저 생각하고 방역전의 승리와 환자들의 완치를 위해 생의 마지막기력까지 다 바친 방역, 보건일군들의 소행입니다.

이들은 조국해방전쟁시기 화선군지들과 간호원들, 천리마시대 붉은 보건전사들과 다름아 없는 우리 시대의 참된 보건일군, 애국자들입니다.

우리 당과 정부는 최대비상방역기간뿐 아니라 비상방역전 시작된 초기부터 전역과 국경, 해안을 비롯한 나라의 방역초소들을 역적으로 지키고있는 전투원들의 헌신과 공로에 대하여도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과 정부의 투명을 받고 비상방역전의 전초선들에 파견된 당대표들과 당지도소조 성원들, 봉쇄차단군무에 동원된 수많은 군인들과 안전, 보외일군들, 노동적위군 대원들, 각지 방역초소 성원들이 국가와 인민의 안녕을 지켜냈다는 책임감, 사명감을 깊이 자각하고 폭염과 폭우속에서도 온갖 예로를 인내하며 방역장벽을 철동같이 다지고 전사회적인 방역규율준수기풍을 세우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였습니다.

이번 최대비상방역기간에 보건부문 일군들과 방역전초선의 전투원들속에서 발휘된 희생정신은 우리당 투쟁사와 조국청사에 당당히 기록될것입니다.

우리식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과 생활력은 최대비상방역기간 우리 인민들속에서 더욱 뜨겁게, 강렬하게 발휘된 공산주의적인 미덕, 미풍에서 집중적으로 표출되었습니다.

온 나라가 악성병마의 위협에 직면한 준엄한 시각 당과 정부의 제일 큰 근심은 수천만 인민들의 건강과 함께 강도높은 봉쇄차단조치로 어차피 우리 인민들이 겪게 될 불편과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중앙은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돕고 위해 주는 우리 사회의 덕과 정을 그 어떤 최신과학기술 기술보다도 더 위력한 방역대승의 비결로 보고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이 우리의 제일가는 공산주의미덕과 미풍을 더 높이 발양한데 대하여 호소하였습니다.

(3면으로 계속)



# 방역전쟁에서의 승리를 공고히 하여 국가와 인민의 안전을 더욱 믿음직하게 담보하자

## 전국비상방역총화회의에서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연설

(2면에서 계속)

당과 사회주의제도의 품속에서 집단주의와 인간애를 공기처럼 호흡하며 배양한 우리 인민들속에서 아름다운 소행들이 발휘되는것은 흔히 보게 되는 미담이지만 이번 방역전에 능동한 감동들은 사연들은 우리 사회의 따뜻함과 귀중함을 더욱 깊이 절감하게 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 많은 가슴뜨거운 미담들과 고결한 인간성에 대하여 일일이 다 열거할수 없는것이 참으로 아쉽습니다.

몇가지 대표적인것만 말하더라도 약성전염병에 시달리는 인민들에게 약품과 식료품을 보내주기 위해 철야전투를 벌인 공장종업원들과 일군들도 있고 가산을 아낌없이 털어내어 마련한 물자들을 합숙과 대학기숙사, 육아원, 애육원에 보내준 사람들도 있으며 방조가 필요한 세대, 곤란한 이웃들에게 사심없이 식량과 부식물, 필수품을 보내준 주민들도 있습니다.

이런 고마운 지원자들은 중앙과 지방, 공장과 농어촌 그 어디에나 다 있으며 또 그속에서는 존경하는 전정로병동지들로부터 시작하여 평범한 근로자들, 인민반장들, 부양녀성들, 나어린 소년단원들에 이르기까지 각계각층을 다 찾아볼수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곤란한 형편에서 자기보다 동지들과 이웃들, 집단을 먼저 생각하고 더우기 자기는 배를 곯으면서도 성의를 다 바치는 이런 미덕의 세계는 결코 돈이나 재부로서는 진가를 헤아릴수 없는 우리 사회의 화목과 인간적유대를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당중앙과 뜻과 정을 같이하고 남을 위해 헌신하는것을 기쁨으로, 보람으로 여기는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우리 인민의 모습에서 나는 그 무엇에도 비길수 없는 커다란 힘을 얻었으며 이런 인민과 함께라면 그 어떤 폭경도 시련도 이겨내고 반드시 승리할수 있다는 확신을 더욱 굳히었습니다.

은 나라가 당과 정부의 두리에 일심일체를 이루고 한결같이 움직이며 집단주의에 기초한 덕과 정의 국풍으로 되어있는 이것이 우리식 사회주의의 고유한 우월성이고 위력이며 바로 이로 하여 이번과 같은 류례없는 방역위기를 용이하게 타개하고 대승을 가져올수 있었습니다.

나는 당중앙위원회와 공화국정부를 대표하여 엄청난 보건위로부터 국가와 인민의 안녕을 수호하기 위한 최대비상방역전의 승리를 앞당김에 힘과 지혜와 정성을 다 바치며 분투, 활약한 전국의 방역부문과 보건부문 일군들을 높이 평가하며 방역장벽을 지켜 수고를 많이 한 모든 인민들과 일군들, 근로자들, 방역사업을 몰입함으로써 성원한 지원자들에게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동지들! 우리는 이번에 비상방역전선에서뿐 아니라 경제전선과 국가사업전반에서도 승리하였습니다.

몇해째 지속된 방역상황에 대처한 약성전염병사태는 국가사회생활과 경제건설에 막대한 장애로, 극심한 혼란을 초래할수 있는 재난으로 되었지만 이 모든것을 완강히 극복하고 정상사업을 유지하면서 예견했던 발전속도를 드림없이 보장한것 자체가 바로 커다란 승리로 되는것입니다.

우리 당이 국가방역사업을 최대비상방역체제로 이행할때 대하여 선포하면서 우리 인민의 견인불발의 정신력과 창조력을 믿고 비상방역전과 계획된 올해의 사업들을 중단없이 추진할것을 결정하였는데 이 과업을 철저히 관철되었습니다.

올해 경제사업의 급선무로 내세운 농업생산에서 제일 중요한 영농공정들이 제기일에 원만히 수행되었습니다.

이번 최대비상방역전은 한해 농사에서 관건으로 되는 불철에 시작된것으로 하여 농업근로자들의 생산활동에 직접적인 장애로 되었으며 제일 바쁜 모내기철에 국가적인 로력지원도 예정대로 할수 없는 상황이 조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농촌혁명강령실현의 첫해인 올해에 거어 자기 책임과 본분을 다하려는 각오와 열의로 충만한 우리의 농업근로자들은 지난 시기에는 상상도 할수 없었던 강인한 정신력을 발휘하여 열병도 이겨내고 방대한 모내기과제도 순수 자체의 힘으로 앞당겨 끝내는 놀라운 성과를 창조하였습니다.

이것이 전국의 근로자들을 크게 고무하였으며 어려운 방역전투를 벌리고있는 인민들에게 화소식으로 되었습니다.

수도의 대규모살림집건설과 련포은실농장건설을 비롯한 중요대상건설에 펼쳐나선 전체 건설자들은 방역학적요구가 더 엄격해지고 수송과 자재보장이 순탄치 않은 조건에서도 계획된 공사일정을 줄기차게 추진함으로써 정해진 기간에 공사를 끝낼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였습니다.

금속, 화학, 전력, 석탄, 기계를 비롯한 기간공업부문과 철도운수부문, 경공업부문에서도 로력보장, 자재보장이 어느때보다 곱절로 곤란하였지만 일별, 순별, 월별 생산계획을 기본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경

제전반의 정체를 막고 올해 목표달성으로 크게 전진하였습니다.

비상위기상황하에서도 전반적인 국가사업의 원활성을 보장한것이 또한 귀중한 성과로 됩니다.

당, 행정, 경제기관들, 사법검찰부문과 안전, 보위, 국방부문들에서 최대비상방역체계가 가동하는데 맞게 비상사업체제를 신속히 수립하고 허접과 공간, 편향을 찾아 대책하면서 자기 사업을 신속성있게 효율적으로 진행하는데서 실천적인 경험을 축적하였습니다.

특히 당조직들과 정권기관을 비롯한 각 부문과 단위 일군들이 당과 정부의 지시에 절대복종하고 인민적시책을 철저히 집행하는 과정을 통하여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를 구현하고 인민을 위해 무조건적으로 복무한다는것이 어떤것인가를 실행동으로 체득하게 된것이 매우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돌발적인 보건위기를 겪으면서 우리 사업에서는 결합과 교훈도 있었으며 이것은 앞으로 직면할수 있는 여러가지 위기에 원만히 대처하는데서 소중한 밑천으로 됩니다.

크게 보면 우리가 찾은 교훈은 두가지로 함축할수 있습니다.

하나는 방역사업이 장기화될수록 사소한 방심과 해이도 허용하지 말고 고도의 긴장성을 견지해야 한다는것이요 다른 하나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국가위기대응능력, 방역능력건설을 빈틈없이 해야 한다는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전부터 견지하여온 방역규정과 지침에 따르면 이번 방역위기의 시발점으로 된 금강군 전역지대에서의 유열자발병도 그 지역내에서 얼마든지 차폐하고 억제할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두명으로 시작된 약성전염병이 방역부문에 내재된 방심과 해이의 공간을 타고 수도 권에까지 침습하여 전국으로 확산되는 엄중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수천수만의 인력을 투하하여 전연과 국경, 해안에 치밀한 봉쇄망을 펴고 전인민적인 방역형체를 조성하였는데 설마 약성비루스가 들어올 틈이 있거나 하였는가고 자만방심, 자제위안하면서 탐기를 풀어놓고있는 그 자체가 이번과 같은 심각한 도전과 위기를 몰아온 장본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만도취, 안일해이, 설마병이 전염병의 초기류입상태를 판단할수 없게 눈을 흐려놓은 중요한 원인으로 되었습니다.

성취가 아니라 만일이라는 자제에 서서 사소한 이상징후도 국가의 운명과 직결시켜 고찰하면서 순발적인 대응력을 발휘하고 불의의 사태앞에서 침착성과 책임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을 자신감있게 전개하였다면 얼마든지 전국으로의 전염병확산을 피할수 있었을것입니다.

이번 방역전쟁을 치르면서 절실히 느끼게 된것은 과학적인 사고와 행동을 떠나 형식주의적이고 기계적인 사업태도와 일본세에 계속 매달린다면 앞으로 도래할수 있는 보건위기에 언제든 당할수밖에 없다는것입니다.

이 교훈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최대비상방역체계가 가동된 초기에 누구나 느낀것이지만 약성비루스의 검사와 진단, 과학적인 치료술을 제때에 정확히 확립실행하지 못한것으로 하여 능히 막을수 있는 인명피해까지 내고 내부에서의 전염병확산을 신속히 억제하지 못하였으며 미신적인 망설임까지 나날이 방역과 치료사업에 적지 않은 혼란을 조성하였습니다.

방역의 모든 고리를 과학적리치에 맞게 근원을 따지고 결과를 예측, 예단하면서 능동적으로 융통성있게 대처하지 못하고 물리적봉쇄이론에만 매달려 기계적으로 사업하다보니 인민들의 생활불편과 경제사업의 부진을 가중시키고 앞질러가며 할수 있는 일도 뒤따라가면서 수습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외에도 우리 보건, 방역의 실태, 깊이 말하면 우리의 보건, 방역하부구조와 기술력, 물질적준비상태가 전진국에 우리 당과 국가가 일관하게 견지해온 보건, 방역정책에 상응하게 발전하지도 못하였고 불의의 사변앞에 민활하게 대응할수 있게 준비되어있지 못한것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우리모두가 다 체험했듯이 일단 유열자가 도처에서 발생할 때 방역부문, 보건부문의 필수대응능력이 얼마나 긴급하고 절실한가를 뼈아프게 새겨야 합니다.

결국 방역능력이자 국가의 안전보장능력이며 인민의 생명수호능력입니다.

지금까지 보면 우리가 국가발전을 추진하고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는데서 항상 중시하고 예측해야 할 객관적인 위기는 세가지로 구분할수 있습니다.

전쟁위기, 전염병위기, 자연재해, 이것이 국가존립과 발전, 인민의 안녕을 위하여 반드시 책임적으로 대처해야 할 3대위기입니다.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억제력과 관련해서는 우리

당과 국가가 오래전부터 강력히 선차적임을 넣고있으며 자연재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동원력, 잠재력도 각성있게 갖추어나가고있습니다.

제일 문제로 되는것은 세계적인 보건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방역능력건설입니다.

때문에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전원회의는 국가방역능력건설을 우리앞에 나서는 초미의 과제로 제시하였습니다.

국가방역능력건설과 관련한 주요정책적과업들이 이미 다 책정되고 시달되었으므로 큰선에서만 몇가지 강조하겠습니다.

우리가 최대비상방역전의 승리를 선포하였다고 하여 전염병전과의 위험성이 완전히 없어졌거나 국가비상방역사업이 다 끝났다고 여겨서는 안됩니다.

대중보도수단을 통하여 매일 소개되는바와 같이 지금 세계적인 보건위기상황과 우리 나라 주변의 전염병위기는 아직 평정되지 않았으며 안심하고 방역조치를 완화하기에는 너무도 때가 이르니다.

우리 경내에 들어왔던 스텔스오미크론변이비루스보다 전파력과 면역회피력이 더 강하면서도 중증도와 치명률이 크게 변하지 않은 10여종의 아형들이 세계각지에 련이어 출현하여 이로 인한 감염자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사망자수도 계속 늘어나고있는 판국입니다.

여기에 위험성이 높은 원숭이천연두비루스가 수십개 나라로 확산되면서 국제적공중보건비상사태가 선포되었으며 기후변화로 인한 여러가지 전염병발생가능성도 인류를 불안케 하고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소기의 성과에 도취되어 자만하거나 해이될 근거가 하나도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으며 국가와 인민의 안녕을 철저히 사수하기 위한 비상방역전선이 계속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을 부각시키고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최대비상방역전에서의 성과와 승리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 세계적인 보건위기가 종식될 때까지 방역장벽을 철통같이 견지하고 방역사업을 강도높이 진행하여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전인민적인 방역의식과 각성을 견지하는데 응당한 주목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방역전의 주인이 광범한 대중이고 방역전의 승패도 사람들의 자각성에 의하여 결정되는것만큼 이미 확립되어있는 전사적인 방역능력기가 절대로 약화되거나 저조해지지 않게 방역선전과 교양을 각방으로 강화하는것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승리한 오늘에 더 위대할 래일의 승리를 위해 우리는 승리라는 이 말을 아껴야 하며 보다는 각성과 실천에 힘써야 합니다.

이제 최대비상방역전의 승리를 자축하면서 불피고 해이와 방심, 무경각이 살아날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당조직들과 근로단체조직들, 행정경제부문, 법기관들은 전부 각성하여 대중적인 방역의식과 위기의식을 견지하는데 힘을 넣어야 합니다.

아무리 강도높은 방역선전과 해설사업도 판에 박은 소리를 반복하면 오히려 권태감과 만성화를 초래하게 됩니다.

때문에 세계적인 방역상황의 변화에 따르는 자료들과 우리 방역실태에 대한 분석에 기초하여 실제 대중속에 방역의식을 공고히 하고 방역준수기풍을 심화시킬수 있는 선전전, 사상전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방역지침과 규률을 여기는 현상과의 조직적, 행정적, 법적투쟁을 따라세워 우리의 방역투쟁이 대중의 자각성에 강력한 법적담보가 안받침된 확실하고 믿음성있는 사업으로 되게 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철통같이 구축된 방역장벽을 유지공고화하는데 계속 주력하여 그 어떤 약성비루스도 다시는 침습할수 없게 하여야 합니다.

국경과 전연, 해안과 해상, 공중에 대한 다중적인 봉쇄장벽들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고 대류행병의 변동특성에 따라 보강할것은 보장하고 새로 차단할것은 차단하면서 봉쇄의 완벽성을 기하는것이 중요 합니다.

여기에서도 봉쇄차단근무를 직접 수행하는 성원들에 대한 사상동원, 고무격려와 함께 근무조건 및 생활보장에 주의를 힘을 넣어 우리의 방역전선에서 사상정신적으로나 작전기술적으로, 방역학적으로 완벽할뿐 아니라 책임성과 경각성에 있어서도 최고의 수준을 유지하게 하여야 합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국가의 방역능력건설에 박차를 가하는것이 우리앞에 나서는 중대한 과업의 하나입니다.

지금 국제적우려를 자아내는 공중보건비상사태도 심각하지만 이에 못지 않는 도전적인 보건위기가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발생할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보건악몽이 재현될 위험이 없다고 단정하며 안심할 근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번 방역전쟁에서 승리하였다고 하여, 지금의 형편이 매우 어렵다고 하여 방역능력건설을 소홀히 하거나 늦추는것은 어리석은 행위이며 만회할수 없는 후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우리 당의 정치리념인 인민대중제일주의의 요구로 보아도 그렇고 사람을 제일 귀중히 여기는 우리 제도의 본성으로 보아도 그렇고 또한 이번 보건위기가 새겨준 뼈저린 교훈을 놓고보아도 방역능력건설을 강행 추진하여 반드시 세계적수준에 올려세워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당과 정부의 확고부동한 의지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창조적으로 실시한 방역정책과 지침들, 축적된 경험과 교훈들을 종합체계화하며 이에 기초하여 우리의 방역을 보다 선진적이고 인민적인 방역으로 완벽하게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리론실천적, 과학기술적문제들에 대한 연구를 계속 심화시켜야 합니다.

국가 방역체계의 질서를 보다 완비하며 방역력량과 물질기술적수단을 충분히 갖추기 위한 사업들을 예견성있게, 현실성있게 추진하여야 합니다.

특히 힘을 넣어야 할 과제는 전문방역일군들을 양성하고 수준을 높여주는 사업, 과학적인 검사측정설비들을 개발장비하는 사업, 전문경력치료사설들을 나라의 곳곳에 꾸리는 사업을 늦추지 말고 계획성있게 밀고나가는것입니다.

이미 제시한대로 각지의 제약공장들과 고려약공장을, 의로기공공장을 현대화하고 능력을 확장하며 의로용소모품공장, 방역의약품공장을 신설하는 사업을 다그쳐야 하겠습니다.

인민들에 대한 의료봉사를 높은 수준에서 보장할수 있게 전국의 병원들을 현대화하고 약국들을 표준대로 꾸리기 위한 사업도 단계별로 실속있게 전개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 인민들이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 제도하에서 가장 훌륭한 보건제도, 방역체도의 실질적인 혜택과 보호를 받으며 무병무탈하고 건강장수하는 행복한 인민으로 되게 하여야 합니다.

동지들! 방역부문, 보건부분야에 나선 중대한 정책적과업들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직접적담당자인 당의 붉은 방역전사, 보건전사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에 우리 인민들은 최대보건위기를 겪으면서 그리고 방역, 보건부문 일군들의 헌신적인 투쟁모습을 목격하면서 의료일군들을 새로운 눈으로 보았으며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제도의 수호자, 인민의 생명을 돌보는 믿음직한 보호자로 간주하게 되었습니다.

방역, 보건부문 일군들은 인민들의 이 믿음, 이 평가를 그 무엇보다도 바꿀수 없는 제일 소중한 재부로 간직해야 하며 이에 계속 보답하기 위해 배가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당이 준 임무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 인간에 대한 뜨거운 사랑, 환자들에 대한 지극한 정성을 체질화하고 우리 제도의 우월성을 방역실천, 보건실천에 철저히 구현함에 심신을 강리치 바치는 참다운 공산주의자가 되어야 합니다.

동지들! 우리는 시련속에서 또 한번 강해졌으며 이제 더 많은 도전과 난관이 가로놓인다 해도 과감히 이겨내고 더더욱 강해질것입니다.

바로 석달전 우리 경내에 약성비루스가 류입전과 되었다는 사실이 공표되었을 때 오늘날같은 날이 이토록 빨리 오게 되리라고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였습니다.

당에 대한 진함없는 충심, 그 어떤 고난도 거기어 웃으며 헤쳐나가는 불굴의 의지를 지니고 오직 우리 당만을 바라보며 굳세게 떨쳐일어나고마은 인민과 그 인민의 일심단합된 힘이 있었기에 우리는 이번 보건위기도 절망과 좌절의 고비가 아니라 발전도약의 기회로 삼고 더 큰 승리를 내다보며 전진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언제나 무한한 힘과 용기를 안겨주는 우리 인민의 믿음과 고무격려를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있으며 이런 훌륭한 인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서라면 목숨까지 서슴없이 내내고 분투하고 또 분투해나갈 결심을 굳게 다지고있습니다.

우리는 이번에 뚜렷이 과시된 우리의 무한대한 잠재력을 최대로 분출시켜 비상방역전선에서만이 아닌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더 큰 성과를 안아오기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야 합니다.

사상회학의 위기를 과감히 이겨낸 우리 인민의 불굴의 정신력을 더욱 발동하고 승화시키면 올해 우리가 내세운 투쟁목표는 물론이고 당 제8차대회가 밝힌 5개년계획의 목표도 성공적으로 점령될것입니다.

모두다 우리의 투쟁과 미래에 대한 확고한 신심과 락관을 가지고 국가와 인민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담보하며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력사적대업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갑시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어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인민들에게 다시한번 경건한 마음으로 삼가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부디 모두의 귀재안녕과 온 나라 가정의 평안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위대한 우리 인민 만세!



#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최대비상방역전의 승리에 공헌한 방역 및 보건부문 일군들과 과학자들을 만나시고 축하해주시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8월 10일 최대비상방역전의 승리를 쟁취하는데 공헌한 방역 및 보건부문의 모범적인 일군들과 과학자들을 만나시고 축하해주시었다.

천리혜안의 선견지명과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령도로 세계보건사에 특기할 기적적승리를 안아오시여 조국과 인민의 안녕을 굳건히 지켜주시고 사회주의조선의 불굴의 기상을 온 세상에 펼쳐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영광의 회의장에서 물가까지 비움게 된 크나큰 행복으

로 하여 참가자들은 솟구치는 걱정을 금치 못하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최대비상방역기간 당과 정부의 인민적이며 과학적인 방역정책, 보건정책을 충직하게 받들어 악성 전염병과의 방역전에서 특출한 기여를 한 일군들과 과학자들 한사람한사람의 손을 따듯이 잡아주시며 격려해주시었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당과 국가가 맡겨준 인민의 생명수호를 위한 전구들에서 힘과 지혜와 정성을 아낌없이 바치며 분투, 활약한 방역, 보건전사들은 전회의 나날 피로써 조국과 인민의 안녕을 결사보위한

화선용사들과 다름바 없는 우리 시대의 참된 애국자라고 높이 평가하시었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우리 나라에서 기승을 부리던 전염병확산사태를 성공적으로 평정하고 방역안전을 회복하는데서 방역부문과 보건부문의 일군들이 수고를 제일 많이 하였다고 하시면서 당의 붉은 혁명에 대한 충실성, 인민에 대한 헌신성, 자기 임무에 대한 책임성을 당중앙은 억만금보다 더 소중하게 여긴다고 말씀하시었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제도의 수호자, 인민의 생명을

돌보는 믿음직한 보호자들인 방역, 보건 부문 일군들과 과학자들에 대한 당의 기대는 매우 크다고 하시면서 우리 인민이 가장 훌륭한 보건제도, 방역제도의 실질적인 혜택과 보호를 받으며 무병무탈하고 건강장수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에서 책임성과 역할을 증대시켜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시었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모든 참가자들이 인민에 대한 변함없는 충심과 헌신적복무정신을 안고 이룩한 승리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 방역투쟁에서 배가의 성과를 내는것으로써 시대와 혁명의 요구에 부응

하고 조국의 줄기찬 전진발전에 적극 기여 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참가자들은 몸소 방역대전의 총사령관이 되시여 대승을 안아오시기도 모든 영예를 전사들에게 돌려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 올리면서 당중앙의 크나큰 믿음을 한생의 제일가는 재부로 간직하고 우리 당정책과 우리 제도의 우월성을 방역실천, 보건실천에 철저히 구현해나가는 참다운 공산주의자로 삶을 빛내어갈 불같은 결의를 다지였다.

본사기자

#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전국비상방역총화회의의 참가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8월 10일 전국비상방역총화회의의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위대한 당중앙의 두리에 천만이 굳게 뭉친 일심단결의 불가항력으로 준엄한 보건위기를 타개하고 최대비상방역전의 승리를 선포한 역사적인 날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시고 주체의 최고성지에서

한생의 영광으로 간직될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게 된 참가자들의 가슴가슴은 크나큰 감격과 환희로 세차게 끓어번지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도착하시자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천지를 진감하며 터져올랐다.

전체 참가자들은 조국과 인민에 대한 숭고한 사명감과 열화의 사랑을 안으시고 선견지명한 통찰력과 강인담대한 의지, 비상한 결단과 탁월한 령도로 인민사수

전의 최전방에서 위대한 멸사복무의 령정을 끝없이 이어가시며 우리 국가와 인민의 존엄과 안녕을 역적으로 지켜주시는 김정은원수님을 걱정의 눈물속에 우러르며 최대의 경의를 삼가 드리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당의 로선과 정책을 절대의 진리로 받아들이고 심장으로 화답해나시며 전인민적인 방역전선의 전위에서 당중앙의 구상과 결심을 철저한 행동실천으로 받아들여온 참가자들에게

뜨거운 전투적인사를 보내시었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우리 인민이 쟁취한 승리는 우리 국가의 위대함, 우리 인민의 불굴의 강인성, 우리가 자부하는 아름다운 국풍이 어떤것인가를 다시 한번 만천하에 과시한 역사적사변으로 된다고 하시면서 당과 인민이 하나의 사상과 신념, 혈연의 정으로 일치단결된 힘이 야말로 남들이 가질수도 흉내낼수도 없는 주체조선의 필승불패의 혁명자산이며

그 어떤 미증유의 격난도 뚫고나갈수 있는 강력한 보검으로 된다고 말씀하시었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전체 참가자들이 최대비상방역전의 값비싼 승리를 새로운 투쟁력과 분발력으로 승화시켜 국가방역능 력건설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가장 우월한 우리식 사회주의제도의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가기라는 기대를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본사기자



# 민족재생의 위대한 은인, 절세의 애국자

8월 15일, 조국해방의 날이 하루하루 다가온다.

일제에 의해 민족의 운명이 칠성판에 올랐던 암흑의 역사를 끝장낸 이날이 있어 오늘의 강성한 조선이 있고 민족의 찬란한 래일도 있다.

지금도 귀전에 들려오는것만 같다.

나라의 독립을 일일천추 바라던 백의민족의 소망이 꿈 아닌 현실로 펼쳐진 사실앞에 너무도 감격하여 조선동포 누구나 목청껏 웨치던 조국해방의 환호성이.

그날에 우리 겨레가 터친 《조국해방 만세!》, 《김일성장군 만세!》는 이 땅에 드디어 찾아온 해방에 대한 기쁨과 환희의 폭발인 동시에 민족의 영웅을 맞이한 크나큰 긍지와 행복감의 분출이었다.

조국해방, 이것은 결코 저절로, 쉽게 이루어진것이 아니다.

자력 독립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항일의 불바다, 피어린 20성상을 풍찬로숙하시여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마침내 안아오신 민족재생의 새 아침이다.

돌이켜보면 지금으로부터 백 수십년전 우리 민족의 운명은 참으로 비참하였다.

《20세기가 열렸다.》고 알려진 종소리와 더불어 서방열강들이 《축하의 삼광》을 터칠 때 유라시아대륙의 동쪽 한쪽에 위치한 조선반도는 망국의 비운속에 빠져들고있었다.

20세기의 첫 설날 아침 75만 원의 국제연기를 간청해 이역의 거리를 헤맸던 조선봉건왕조, 조선을 강탈하기 위한 렬강들의 피비린 각축전으로 삼천리강토에 무겁게 드리웠던 참혹한 재앙의 먹구름, 이 땅을 삼키려는 일제의 침략의 마수.

오죽했으면 당시 서유럽의 한 관리가 조선을 가리켜 《대국들의 발걸에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는 축구공》, 《시체를 노리는 까마귀들의 먹이감》이라고 했겠는가.

나라는커녕 왕궁조차 지킬 힘이 없었기에 나중에는 섬나라오랑캐들에게 나라를 통째로 빼앗기지 않으면 안되었던 우리 민족이었다.

나라잃은 백성은 상가집 개만도 못하다고 일제의 식민지노예로 된 우리 겨레는 온갖 굴욕과 학대, 착취와 약탈을 강요당했



조국개선을 환영하는 평양시군중대회에서 연설하시는 위대한 김일성주석 (1945. 10. 14.)

고 수백만명의 청장년들이 침략 전쟁터에 끌려다니고 죽음의 고역장에 내몰려 참혹한 죽음을 강요당했다. 지어 자기의 말과 글, 성과 이름까지 일제에게 빼앗기지 않으면 안되었다. 조선민족의 운명은 말그대로 칠성판에 올라있었다.

이 치욕과 수난, 비극을 가시고저 수많은 의사, 지사들이 애국의 선혈을 뿌리며 반일의 길에 나섰다. 의병도 일으키고 독립군도 무어 싸웠다. 3.1의 독립합성도 터쳤고 6.10만세시위도 벌였다. 국제보상운동도 하였고 큰 나라에 독립을 이루게 해달라고 간청도 하였다.

그러나 그 모든것은 쓰디쓴 실패와 좌절을 면치 못했다. 탁월한 명수를 모시지 못했기때문이었다.

삼천리강토는 인간생지옥으로 화하고 반만년의 역사를 창조

해온 조선민족이 존망의 위기에 처했던 바로 그 암담한 시기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반일성전을 선포하시고 조국해방의 길에 나서시었다.

당시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항일대전을 선포하셨을 때 반일인민유격대와 일제와는 력량상, 무장장비상 대비조차 할수 없었다. 하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 《무장에는 무장으로, 반혁명적폭력에는 혁명적폭력으로!》라는 구호를 제시하시고 결연히 발톱까지 무장한 일제와의 전면대결전을 선언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이렇게 쓰시었다.

혁명이란 이다지도 간고한것인가. 불과 2~3년동안이면 손쉽게 결관을 낼수 있으리라고 보았던 우리 혁명이 어찌면 이렇게도 험한 벼랑끝에 와서게 되

었는가. 안도에서 나팔을 불며 도도하게 출발하였던 우리의 대오가 황량한 이 산등에서 전진할을 멈추고마는가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았다. ...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라자자동판에서 18명의 대원들과 함께 생사존망의 위기에 처했을 때의 일을 두고 하신 교시이다. 나라를 찾기 위한 항일의 그 나날 겹쳐드는 시련과 난관, 쓰라린 아픔은 실로 끝이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갖 창건된 무장대오를 이끄시고 남만으로, 동만에서 북만으로, 다시 북만에서 동만으로 이어가시던 원정의 길이며 유격근거지를 사수하기 위한 피어린 투쟁, 남페자로부터 북대정자에 이르는 고난의 행군...

어찌 이뿐만이라. 항일의 그 나날 사랑하는

부모님과 동생, 삼촌을 잃으시고 빨재산의 추도가속에 생사고락을 함께 하던 전우들과 영리별해야 하였던 위대한 수령님이시었다.

남들 같으면 얼백번도 더 쓰러졌을 그 시련과 아픔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불굴의 의지로 이겨내시며 항일무장투쟁을 승리로 이끄시었다.

천리혜안의 예지와 명활한 전법, 비범한 명군술로 적들의 간담을 서늘게 하시고 싸움마다에 일제침략자들에게 무리죽음을 안기신 위대한 김일성주석이다.

보천보전투, 간삼봉전투, 대마록주전투, 흥기하전투를 비롯한 대소전투들과 유인매복전법과 기습소탕전, 동성서격전법, 일행천리전술, 망원전술을 비롯한 기묘한 유격전법과 전술들은 불세출의 령장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유격전의 빛나는 모범

이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고기가 물을 떠나 살수 없듯이 유격대는 인민을 떠나 살수 없다고 하시면서 항일무장투쟁의 전기간 언제나 인민의 힘을 믿고 모든 반일애국력량을 항일의 기치아래 묶어세우시여 일제와의 전면항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었다.

주체25(1936)년 5월 반일민족통일전선체인 조국광복회를 결성하시여 전체 조선민족을 반일항전의 기치아래 묶어세우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반일민족해방투쟁을 일대 양양으로 이끌어 올리시기 위하여 무장투쟁의 중심무대를 백두산지구으로 옮기고 점차 국내으로 확대하도록 하시었다.

우리 겨레가 조종의 산으로 떠받드는 백두산을 중심으로 하여 조국해방성전을 국내으로 확대한다면 나라의 독립을 능히

이룩할수 있다는것이 위대한 수령님의 드립없는 의지였다.

하기에 그이께서는 백두산밀영을 중심으로 하여 그 주변에 무두봉밀영, 선오산밀영, 간백산밀영, 지양개밀영, 이도강밀영, 리명수밀영, 청봉밀영을 비롯한 수많은 위성밀영들을 꾸리고 무장투쟁을 힘있게 조직전개해나가시였으며 북부조선일대의 백암, 풍산(당시), 후창, 후치령, 랑림, 부진, 신흥, 위린, 창성, 오가산지구와 중부조선일대의 덕천, 양덕, 안주, 평성, 구월산, 신평, 곡산, 토산, 판교, 태백산지구 그리고 남부조선일대의 지리산지구를 비롯한 전국각지의 중요지대들에 비밀근거지들을 꾸려 조국해방의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갖추어나가시었다.

전민항전으로 조국해방을 안아오시려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마침내 주체34(1945)년 8월 15일 조국해방의 민족사적업일이 이룩될수 있었다.

해방의 그해 11월 5일부 《해방일보》는 나라의 독립과 민족의 해방을 이룩하신 어버이수령님의 거룩한 민족사적업적에 대하여 이렇게 전하였다.

《... 청년영웅 김일성장군!

그이야말로 우리의 위대한 투사요, 진실한 지도자이시다.

8월 15일전에 우리의 민족으로 찬연한 투쟁사를 가졌다면 그 중요한 폐지는 김일성장군의 투쟁에 드리지 아니할수 없으며 우리 민족의 진정한 지도자를 가졌다면 김일성장군을 첫손가락에 꼽지 아니할수 없을 것이다.》

진정 위대한 수령님은 도란에 빠졌던 우리 겨레에게 재생의 새봄을 안겨주시고 영원한 번영과 통성의 새 역사를 펼쳐주신 절세의 애국자, 민족의 위대한 어버이이시다.

그때로부터 장장 77년이 지나갔다.

그러나 어버이수령님께서 이룩하신 조국해방의 크나큰 업적은 조국청사와 더불어 길이 빛나고있으며 위대한 수령님은 영원한 민족의 구세주로 겨레의 다함없는 경모와 칭송을 받고 계신다.

전일남





# 천추만대에 길이 빛날 위대한 애국업적

8월 15일. 우리 겨레가 악독한 일제의 식민지배에서 해방되어 자유와 독립을 쟁취한 이 뜻깊은 민족적절정에 더욱 깊은 민족적정열에 더욱 깊은 새겨안군 하는 역사의 진리가 있다.

국력이 약하면 나라를 빼앗기고 식민지노예의 운명을 강요당하게 된다는 것, 힘이 강해야 나라와 인민의 운명을 지킬 수 있다는 바로 그것이다.

나라의 힘.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겨레가 더욱 뼈저리게 체험한 것은 십나라오랑캐들에게 나라를 송두리째 빼앗길 때였다.

1905년, 《을사5조약》의 날조. 그것은 약소민족이 당한 가슴아픈 치욕이고 비극이었다.

일제는 황궁을 무력으로 점거하고 황제와 조선봉건정부의 대신들을 총칼로 위협하며 만주조약을 강박했다. 반대하는 대신들은 밖으로 내동댕이쳐졌다.

고종황제가 《조약》날조를 끝까지 반대하며 《백성들의 의향》을 물어야 한다고 하자 《헌법정지》가 아닌 《군주전제국》에서 《백성의 의향은 기피치민한 일》이라고 무조건적인 순종만을 강요했다.

그리고 최고주권자인 황제의 비준도 옥새날인도 없는 조약문서를 《조약》이라며 세상에 공포했다. 만국은 누구도 원치 않았으나 그것은

국력이 약한 조선민족이 당한 슬픈 운명이었다.

1905년에 이르러 일본은 6 000급이상의 최신군함만도 12척에 현대적무장을 갖춘 20만명의 특근상비부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 방대한 무력을 배경으로 일본은 조선봉건정부에 만주조약을 강요하려고 로일전쟁에 투입했던 저들의 기본병력을 서울에 끌어들었다. 당시 서울에는 일본군의 보병 3만명, 기병 800명, 포병 5 000명이 투입되었다.

이에 비해 조선군대의 병력수는 서울에 2개 연대 5 000명과 지방에 8개 대대 약 2 000명을 합쳐 7 000명 정도에 불과했다. 이것은 한 개 사단의 병력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었다. 군대의 기본무장장비도 창과 활, 화승대였다.

20만명 대 7 000명. 대포 대 화승총.

이것이 1905년 당시 일본과 조선의 군력실태였다. 이런 군력으로 어떻게 나라를 지켜낼 수 있었겠는가.

20세기 초 만주조선이 터프린 원한의 동곡소리는 힘이 없어 한순간에 나라를 빼앗기고 만주노의 신세가 된 겨레의 곡성이고 피눈물이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만국은 순간이고 북국은 천년이라고 밝히신 것처럼 잃기는 쉬워도 찾기는 힘든

것이 나라이다. 그 빼앗긴 나라를 다시 찾기까지에는 무려 40여년의 세월이 흘러야 했다.

하기에 뛰어난 항일대전으로 나라의 해방을 이룩하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해방후 새 조국건설의 나날 구체적인 병기공업을 창설하고 정규적인 혁명무력을 마련하는데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셨다. 이렇게 일떠선 병기공장에서 로동자, 기술자들이 만든 기관단총과 수류탄, 박격포 등을 가지고 후날 공화국의 인민과 군대는 미국의 강도적인 무력침공을 물리치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영예롭게 수호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미국의 침략책동이 로물화되고 현대수정주의자들이 《평화적공존》을 떠들고있던 때에도 군력이 약하면 나라를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은 김일성주석은 더욱 적극적으로 다져주신 어버이수령님께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강화발전시켜주신 자위의 군력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에 의하여 더욱 튼튼히 다져지게 되었다.

지금도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준엄한 시련의 나날 군력강화의 멀고 험한 길을 앞장에서 헤쳐가시며 우리가 왜 이 길을 걸어왔는가를 후

대들도 알게 될 것이라고 하시며 선군의 길을 걷고걸을 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불굴의 모습을 천만인민들은 잊지 못하고있다. 힘이 강해야 사회주의조국을 지키고 인민들의 행복과 후손만대의 미래도 담보할 수 있다. 사랑없이 살 수 있어도 총알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철리를 신념으로 간직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적대세력들이 피를 물고 달려들던 것처럼 어려웠던 시기에 자신의 심신을 깎고리 바치시어 자위의 군력을 억척으로 다지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주셨다.

오늘 공화국은 또 한분의 철세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해 무적멸승의 초강대국으로 그 위용을 남김없이 떨치고있다.

공화국의 군대는 가공할 타격력, 압도적인 군사력을 갖춘 세계적인 강군으로 자라났다. 오늘도 사람들은 천지를 뒤흔드는 요란한 폭을 함께 눈부신 불꽃기를 내뿜으며 만리장군으로 힘차게 솟구쳐오르던 신형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포-17》형의 장쾌한 모습을 눈앞에 떠올리고있다.

지난 4월 25일 심야열병식장을 누비던 철의 흐름은 또 얼마나 장쾌한 것인가. 강대한 공화국의 존엄과 사상초유의 힘을 한가슴에 안아보던 력사의 그 순간에 온 나라 인민은 우리 국가의 강대

한 힘을 마련해주신 철세위인을 우리르며 고마움과 격정의 눈물을 흘리고 또 흘리었다.

우리의 존엄을 짓밟는 것을 절대로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시며 무적멸승의 국력을 떠올리시기 위해 산악같은 파도가 요동치는 캄캄한 바다길을 한치한치 뚫고가시었고 허리치는 바다물속에 도 남먼저 들어서시였으며 위험천만한 화산에도 서슴없이 나서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생결단의 헌신과 로고를 누구나 가슴뜨겁게 되새기었다.

에나 지금이나 조선의 지정학적위치는 변함이 없다. 땅도 그 땅이고 인민도 그 인민의 후손이다.

그러나 오늘의 조선은 한세기전의 조선이 아니다. 그 어떤 침략세력도 감히 넘볼 수 없는 나라, 남북다면 그 대가를 치열하게 치러야 하는 천하무적의 강국이다.

바로 이런 강대한 나라를 우뚝 세우시어 민족의 반만년 강국념원을 풀어주시는 것이야말로 철세의 위인들이 나라와 인민, 겨레를 위하여 하여 쌓으신 천추만대에 길이 빛날 위대한 애국업적이다.

철세위인들께서 마련해주시고 더욱 튼튼히 다져주시는 불가항력이 있기에 공화국은 끄떡없고 인민의 천만년 밝은 미래도 굳건히 담보되고있는 것이다.

본사기자 유금주



인민의 권정에 영광의 최절정에

일제에게 나라를 통채로 빼앗기고 식민지노예의 불우한 처지에 놓여있던 민족수난의 시기 조선인민의 처지는 비참하였다.

나라가 없어 존엄도 권리도 짓밟힌 인민에게 변변한 이름이 있을리 없었다.

발고광에서 태어났으면 고향너, 지주집종살이를 하면 마당쇠, 부역너로 불리웠고 막별이군으로 여기저기 떠돌아 다닌다고 장물이 등 수난많은 삶들이 그대로 이름들에 비껴 있었다.

더우기 일제의 악랄한 《창씨개명》으로 하여 그 이름마저 빼앗기고 일본식 이름을 강요당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불쌍한 조선민족이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이렇듯 천대받고 압박받던 인민에게 나라를 찾아주시고 인민적시책들을 편이어서 실시하시어 인민을 나라의 주인, 공장의 주인, 땅의 주인으로 되게 하시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세워주신 인민의 새세상에 어제날의 고향너, 마당쇠들이 자기 이름 석자가 새겨진 말뚝을 기름진 옥토에 박으며 농민대표로, 또 자기의 이름이 쓰여진 대표표와 선거표를 눈물속에

## 해방된 조국강산에 울린 새 삶의 노래들

《밭갈이 노래》

백두산말기에 백학이 너울 너울  
해방된 강산에 빠구기 빠구기  
아 장군님 주신 땅  
에루화 데루화 모두다 떨쳐나  
밭갈이가세

주인된 새땅엔 기쁨도 넘실 넘실  
새로 푼 논에는 봄물결 출렁 출렁  
아 장군님 주신 땅  
에루화 데루화 한친들 목이래  
밭갈이가세

민주의 새봄에 만풍년 불리 불리  
장군님 은덕에 천만년 보답 하세  
아 장군님 주신 땅  
에루화 데루화 충성의 한마음  
밭갈이가세

이 노래는 어버이수령님께서 베풀어 주신 토지개혁의 혜택으로 탄생 처음 제방에서 밭갈이를 하게 된 농민들의 끝없는 기쁨을 노래하고 있다.

해방된 조국강산에서 땅의 주인으로 된 기쁨과 긍지를 안



주면서 어버이수령님의 은덕에 천만년 보답하려는 그들의 소동생활을 자연의 아름다운 화폭과 결부시켜 생동하게 보여 현하고있다.

《산업전국의 노래》

건설의 불꽃으로 몸을 달구어  
우렁찬 마치소리 높이갈적엔  
쇠같은 팔다리에 피줄이 뛰고  
천백만 높은 굴뚝 수풀이로다  
아 이 감격을 생산돌격 산업  
부흥에  
모든 힘을 한데 뭉쳐 산업  
부흥에

주체36(1947)년에 창작된 이 노래는 어버이수령님께서 베풀어 주신 토지개혁의 혜택으로 탄생 처음 제방에서 밭갈이를 하게 된 농민들의 끝없는 기쁨을 노래하고 있다.

해방된 조국강산에서 땅의 주인으로 된 기쁨과 긍지를 안

《여성의 노래》

인민주권 받들고 나가는 여성  
들아  
우리 힘에 조국터전 날마다  
건설된다  
공장의 녀성도 농촌의 녀성도  
가슴마다 불타는 애국심 품고  
씩씩하게 뚫어차 장군님  
뒤리에  
찬란한 우리 조국 완전독립  
위하여

가슴마다 불타는 애국심 품고  
씩씩하게 뚫어차 장군님  
뒤리에  
찬란한 우리 조국 완전독립  
위하여

해방후 건국의 첫 기술에서 창작된 이 가요는 새 조선의 주인으로 역세에 살며 싸워나가는 녀성들의 환희와 격정을 노래하고 있다.

은갖 무권리속에서 신음하며 천대받던 녀성들이 해방된 조국 땅에서 남자들이 똑같은 권리를 향사하며 조국건설의 한쪽수레바퀴를 역세에 돌리려는 미더운 녀성혁명가들이 되어 어버이수령님



뒤리에 썩썩하게 뚫어나가는 모 보이는듯하다. 본사기자 리경월

박남수



사설

#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이 땅위에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자

오는 8월 15일은 우리 민족이 일흔 일곱번째로 맞는 조국해방의 날이다. 이날을 맞으며 우리 겨레는 잃었던 나라를 다시 찾아주시고 민족재생과 발전의 넓은 길을 열어주시는 민족의 전설적영웅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와 고마움으로 가슴을 적시고있으며 하루빨리 민족분열의 비극을 끝장내고 조국통일의 역사적위업을 기어이 실현할 불타는 결의에 넘쳐있다.

돌이켜보면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자랑하는 우리 민족이 지난 20세기 초 국력이 약한 탓에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식민지노예의 운명을 강요당하게 된 것은 참으로 가슴아픈 일이었다.

예로부터 불에 굴할 줄 모르고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생명처럼 귀중히 여겨온 우리 민족은 빼앗긴 조국을 찾기 위한 간고한 투쟁을 벌여왔다.

하지만 그 모든 노력들은 탁월한 수령의 령도를 받지 못한 것으로 하여 빛을 보지 못하였다.

조국해방에 대한 우리 민족의 숙망은 항일의 전설적영웅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 밑에 비로소 이루어지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혈전만리, 피바다만리를 헤쳐오신 항일의 20성상이 있어 우리 민족은 마침내 40여년간의 일제식민지통치를 끝장내고 감격스러운 조국해방의 날을 맞이할 수 있었다.

참으로 세계지도 위에서 빛을 잃었던 조선을 찾아주시고 민족의 운명을 구원해주신 위대한 수령님은 우리 민족이 반만년역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절세의 애국자, 만고의 영웅이시다.

조국해방의 그날로부터 세월은 퍼그나 흘러갔다.

허나 오늘날도 우리 겨레는 역사의 이날을 민족분열의 지속이라는 가슴아픈 현실 속에서 맞이하고있다.

오래전부터 조선을 라고았기 위해 호시탐탐 침략의 기회를 노려오던 미국은 8.15작후 남조선을 군사적으로 강점하고 38°선에 분계선표찰을 박음

으로써 대대로 하나이던 우리 민족을 둘로 갈라놓았다. 외세가 강요한 민족분열로 하여 우리 겨레가 겪어온 불행과 고통은 헤아릴 수 없다. 조국강토를 갈라놓은 분별은 참혹한 전쟁을 불러왔으며 70여년간이나 우리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가로막고 민족내부에 불신과 대결을 격화시켜왔다. 분별의 세월이 길어질수록 겨레의 고통과 아픔은 더해지고 전쟁이 다시 터질 수 있는 위험이 높아지고있다.

우리 민족은 세기를 이어 지속되고 있는 민족분열의 가슴아픈 역사를 겪으면서 통일의 절박성을 누구나 깨부르려고 절감하고있다.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은 자주통일을 위한 거룩적인 투쟁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한다.

민족자주의 기치를 더 높이 추켜들고나가야 한다.

자주는 민족의 생명이며 자주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나가는 여기에 민족의 존엄이 있고 자주통일과 민족번영의 길도 있다.

외세는 우리 민족을 둘로 갈라놓은 장본인이며 오늘날도 우리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가로막는 압적존재이다.

이러한 외세에 의존한다면 민족운명을 개척할 수 없고 언제 가도 나라의 통일을 이루할 수 없다.

온 겨레는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투철한 민족자주, 민족자결의 립장을 가지고 우리 민족을 영연히 갈라놓고 조선반도의 지배자로 군림하려는 외세의 간섭과 전횡을 철대로 무파하지 말아야 한다.

민족자주가 조국통일과 민족번영의 길이라면 외세의존은 민족의 영구분열과 망국의 길이다.

외세의 《동맹강화》를 떠들며 민족의 운명과 리익을 해치려는 온갖 분렬주의적, 반통일적행위를 단호히 반대배격하여야 한다.

온 겨레가 분연히 떨쳐일어나 나라의 평화와 민족의 안녕을 굳건히 지켜나가야 한다.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평

화를 수호하는것은 우리 민족의 운명과 관련된다는 사실적인 문제이며 조국통일의 필수적전제이다.

오늘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과 그에 추종하는 남조선호전파들의 북침전쟁도발책동으로 하여 조선반도에는 지금 당장이라도 전쟁이 터질수 있는 험악한 정세가 조성되고있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민족의 삶의 터전인 삼천리강토를 참혹한 전쟁터로 만들고 우리 민족자체를 멸살시키려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의 새 전쟁도발책동을 단호히 짓부셔야 한다. 북침전쟁연습의 포성이 울리는 곳마다에서 평화수호의 함성, 내외호전세력을 규탄배격하는 함성이 높이 울리게 해야 한다.

온 겨레가 거룩적인 조국통일대진군에 과감히 떨쳐나서야 한다.

민족의 숙원인 통일은 몇몇 사람이나 단체의 힘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

조국통일의 주체는 전체 조선민족이며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통일운동의 주인이 되어 떨쳐나설 때 통일의 날이 앞당겨지게 된다.

우리 민족이 일제식민지통치를 끝장내고 조국해방의 역사적위업을 이룩할 수 있는것도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 밑에 전민이 반일민족통일전선의 기치 아래 굳게 뭉쳐 거룩적인 반일투쟁을 벌였기때문이다.

누구나 애국애족의 뜨거운 열기와 민족의 밝은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조국통일의 기치아래 굳게 뭉쳐 통일대진군에 힘차게 떨쳐나서야 한다.

침략적인 외세와 야합한 반통일분자들이 아무리 기술을 부려도 자주주의 념으로 불타고 통일애국의 숭고함을 높인 8천만겨레의 드높은 통일기상은 결코 꺾을 수 없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천출위인 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을 높이 모신 코리아민족적근지와 자부심을 안고 더욱 용기백배, 기세충천하여 통일대진군을 힘차게 벌려나감으로써 이 땅위에 자주적이고 번영하는 통일강국을 반드시 일떠세우고야말것이다.



## 겨레를 통일어로 부르는 조국통일 3대헌장기념탑

평양의 통일거리 남쪽입구에는 독특한 건축형상으로 온 겨레를 통일의 길로 부르는 기념탑이 있다.

오늘도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이어지는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이다.

아름다운 목란꽃장식위에 조선지도가 그려져있고 그아래 《3대헌장》이라는 글발을 새겨넣은 탱기를 조화롭게 안반침하여 원형으로 형성한 3대헌장마크와 그것을 힘있게 받아들여올리며 마추신 조선옷차림의 두 녀인의 환희에 넘친 모습.

금시라도 일사안고 통일만세를 부를듯 열정적으로 두 팔을 뻗치고 마추시있는 두 녀인의 형상은 조국통일은 우리 민족이 반드시 미룰수 없는 지상의 과업이며 민족최대의 숙원임을 보여주고있다.

그리고 그림으로 즉 뻗어간 대동로는 조국통일3대헌장의 기치따라 힘차게 내달려 통일의 문을 열어나가는 우리 민족의 역센 기상, 드높은 의지를 보여주고있다.

그뿐이 아니다. 탑신의 양쪽기단에 동으로 형성된 조국통일3대원칙

원,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편,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편, 통일만세편의 부주제군상들과 탑신의 내부에 형성된 기념탑전시장은 온 겨레의 통일열망과 조국통일에 대한 국제적인 지지와 연대성을 감명깊게 보여주고있다.

이렇듯 심오한 뜻을 담고 특색있게 형성한 기념탑에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세심한 령도의 손길이 뜨겁게 깃들어있다.

기념탑교양마당에 모셔져 있는 위대한 수령님의 조국통일명제비는 또 얼마나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주는 것인가.

《조국을 통일하려면 그가 북에 살건 남에 살건 해외에 살건 관계없이 온 겨레가 통일운동에 떨쳐나서야 하며 사상과 리념, 정견과 신앙의 차이에 관계없이 각계각층의 모든 동포들이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하나로 굳게 뭉쳐야 합니다.》

정적 위대한 수령님의 민족대단결의 한평생이 그대로 집어안고 있는 불멸의 명제이다.

하기에 이 뜻을 찾는 사람마다 민족대단결과 조국통일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애국애족의 뜻을 새겨안으며 통일의 길

에 나설 불같은 결의를 다지곤 한다.

그들가운데는 사신을 해치고 평양을 찾아왔던 남조선의 통일애국인사들도 있고 조선민족의 한 성원이라는 긍지를 안고 멀리 대양과 대륙을 넘어온 해외동포인사들도 있다.

이 기념탑앞에서 북과 남, 해외의 각계층 동포들이 일사안고 통일의 노래를 부르며 민족단합과 통일열기를 드높였던 잊지 못할 화폭들이 조국통일운동사에 새겨져 있다. 그것은 그대로 조국통일3대헌장의 기치밑에 우리 겨레가 줄기차게 달려온 민족단합과 조국통일의 길이였다.

그가 어디에서 살든 조국통일을 위한 애국애족의 투쟁에 떨쳐나서라, 그리고 민족대단결의 기치아래 하나로 굳게 뭉치라.

이 해침과 더불어 조국통일 3대헌장기념탑은 온 겨레를 조국통일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으로 추동하는 기치로 높이 솟아 빛나고있다.

본사기자 박철남

# 숭고한 사랑과 믿음속에 빛나는 삶

사람이 인생의 황혼기에 들어서면 추억속에 신다고들 한다. 더우기 고향을 떠나 타향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두고 온 고향산천을 그리워 한다.

《승공》을 생의 신조로 삼고 미국에서 수십년간 《승공운동》에 앞장섰던 세계평화련합 총재였던 문선명선생도 인생말년에 이르러 정든 고향을 찾고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백발도 고극이 그리워 온다고 하였다.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멀리 떨어져있으면 멀어졌을수록 가고싶고 보고싶은것이 고향이다.

하여 그는 자기 고향을 방문하게 해달라는 요구를 공화국에 제기하였다.

이것은 삼시에 전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것은 그가 《승공통일》, 《공산주의소멸》의 구호를 제창하며 반공의 앞장에 서은 《통일국의 교주이기에문이었다. 또한 당시 동유럽사회주의나라들이 련이 무너지고 특히 핵사찰문제를 둘러싸고 조미관계가 극도로 긴장해있던 시기였기때문이다.

그의 고향방문을 놓고 공화국의 해당 부문 일꾼들속에서는 받아들일수 없다고 하면서 외면하려 하였으며 그의 과거를 아는 많은 사람들도 이것을 당연한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사상과 리념, 정견과 신앙, 제도와의 재산의 유무 등 모든것을 초월하여 안아주고 이끌어주시는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장군님의 숭고한 민족대단결사상과 넓은 아량, 친어버이사랑에 의해 그의 고향방문은 이루어지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는 문선명선생의 고향방문에 아무런 불편이 없도록 특별비행기도 띄워주시고 일꾼들이 비행장에 나가 동포애의 정으로 따듯이 맞이하도록 하셨다.

이렇게 되어 문선명선생은 1991년 11월 30일부터 12월 7일까지 어언 70고령의 나이에 평양을 방문하게 되었다. 가족친척의 비행장마중으로부터 고향인 정주방문, 만경대와 주체사상탑, 개선문, 5월1일경기장을 비롯한 평양 시내 여러곳과 남포시, 강원도, 금강산 등 지방과 명승지들을 참관하면서 문선명선생 일행은 공화국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

더우기 떠나기 전에는 친히 만나주시고 기념촬영과 오찬까지 함께 하시며 따뜻한 동포애를 베풀어주시는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한없이 넓은 도량과 포용력, 고매한 인품에 깊은 감동을 금치 못했다. 지난날의 불미스러운 과거를 불문에 붙이시고 문선명선생에 따듯이 만나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에게 우리 두사람이 단결하면 그 힘이 한사람의 힘보다 더 클 것이며 이렇게 전체 조선민족이 단결하면 통일은 반드시 실현될것이라고 교시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우리는 과거 지사를 묻지 말고 서로 단결하여 조국통일을 실현해야 하며 힘있는 사람은 힘을 내고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을 내고 시며 앞으로 그가 돌아가셔도 공화국의 통일방안에 대하여 잘 해설해주어야 한다고 하시였다.

이날 문선명선생이 제기한 문제들에도 명쾌한 해답을 주시며 앞으로 그가 돌아가셔도 공화국의 통일방안에 대하여 잘 해설해주어야 한다고 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민족애와 뜨거운 믿음에 진심으로 감복한 문선명선생이었다.

하기에 문선명선생은 위대한 수령님을 모신 자리에서 자기 가 살던 정주고향집과 가족친척들이 모두 잔재할것 보니 그동안 공화국을 비난한것이 얼마나 잘못된것인가를 뼈저리게 느꼈다고, 앞으로는 반공을 하지 않고 통일을 하는데 앞장서겠다고 진정을 담아 말씀올렸다.

자기의 불미스러운 과거를 잊할 대신 통일애국의 길에 함께 손잡고 나가자고 믿음과 사랑을 부여주시는 위대한 아버지, 그의 뜻과 의도대로만 한다면 통일은 반드시 오고야말것이라는 확신을 굳게 가지였기에 그는 조국통일과 민족대단결을 위한 인생의 새로운 길에 용약 뛰어들수 있었다.

그는 고향방문을 마치고 돌아가면서 《김일성주석님과 김정일장군님의 은혜에 이루어 다 감사할 길이 없는것을 안타깝게 여기며 심심한 사의를 표할뿐》이라고 자기의 마음속심중을 토로하였으며 조국대문후부터는 기도를 드릴 때도 《북과 남이 다 합하여 세계에서 제일 우수한 민족이 되어 김일성주석님을 중심으로 온 7천만민족이 하나가 되어 행복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하고 주문을 외웠다고 한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문선명총재의 고향방문을 허락하시고 친히 만나주시였다는 소식이 교포신민들로는 《피는 물보다 진하다. 세상에 이 명언을 그 어떤 가책도, 그 어떤 가식도 없이 정정당당하게 선언할수 있는 위인은 하늘같은 도량과 포용력을 지니고계시는 위대한 김일성주석님뿐이시다.》, 《반공으로 얼룩진 그같은 사

람까지 고향땅에 발을 들여놓게 해주시고 만가지 허물을 잊지 않고 만나주신 주석님의 넓은 도량과 포용력은 참으로 위대하다. 쇠불이가 자석이 끌리듯, 지구가 태양에 끌리듯이 못사람들이 이에게 매혹되어 평양으로, 평양으로 달려가는 세상리치를 우리도 알게 되었다.》고 격동된 심정을 그대로 피력하였다.

이렇게 문선명선생은 수십년간 자신의 신조로 여기던 반공을 단 며칠간의 공화국방문을 통하여 부정하고 남의 여생을 위대한 수령님들의 조국통일사상을 받들어나가는데 다 바치였다.

그는 1992년 11월 남조선에서 잊게 될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발표한 《남북통일에 대비해야 할 14대대통령선거》라는 제목의 글을 발표하면서 《남북통일을 위해서 모든 정당이 자기 리해관계를 떠나 조당적으로 협력할수 있어야 하며 대선직후 모든 정당들은 연합하여 주체사상으로 뭉쳐있는 북의 2천만동포와 마음을 합칠수 있는 국민정신교육을 서둘러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남조선출판물들은 《평생을 반공운동에 바쳐온 그가 보여준 행동은 말 그대로 엄청난 충격이었다.》고 놀라움을 표시하였다.

문선명선생은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뜻밖에서 거하시였을 때 북에서 일체 조문단을 받지 않는다는 통보를 접하고 압록강을 헤엄쳐 건너가서라도 주석님께 조의를 표시하라고 하면서 한 인사를 평양으로 보냈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뜻밖에서 잃은 퍼눈물의 12월에는 자기의 아들과 박상권 《평화자동차》 대표리사, 주동문 《위신톤 타임스》 회장 등 3명

을 직접 보내어 조문하도록 하는 깨끗한 의리심을 보여 주었다.

한없이 숭고한 민족애, 동포애를 지니신 경애하는 김정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뜨거운 믿음과 사랑속에 통일애국의 길을 걸은 그에게 죽어서도 빛나는 값높은 삶을 안겨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문선명선생이 병환으로 사망하였을 때 친히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하시였다. 또한 문선명선생은 서거하였지만 민족의 화해와 단합, 나라의 통일과 세계평화를 위하여 기술인 선생의 노력과 공적은 길이 전해지게 될것이라는 내용의 조전을 보내주시고 내용의 말쑤를 하시였으며 고인의 명전에 화환을 보내시였다. 뿐만아니라 그에게 조국통일상을 수여하도록 하고 평양에서 추모행사를 크게 하도록 하며 정부와 관계기관 일꾼들이 세계평화센터를 찾아 조의를 표시하도록 하는 가슴뜨거운 사랑의 세계를 펼쳐주시였다.

전 세계평화련합 총재 문선명선생의 서거 1년이 되는 해에는 한학자 세계평화련합 총재에게 민족의 화합과 번영, 나라의 통일과 세계평화를 위하여 노력한 문선명선생의 명복을 기원한다고 하시면서 한학자총재를 비롯한 유가족이 선생의 뜻을 계속 이어가며 세계평화련합의 모든 일이 잘되기를 바란다고 은정어린 추모의 말씀도 보내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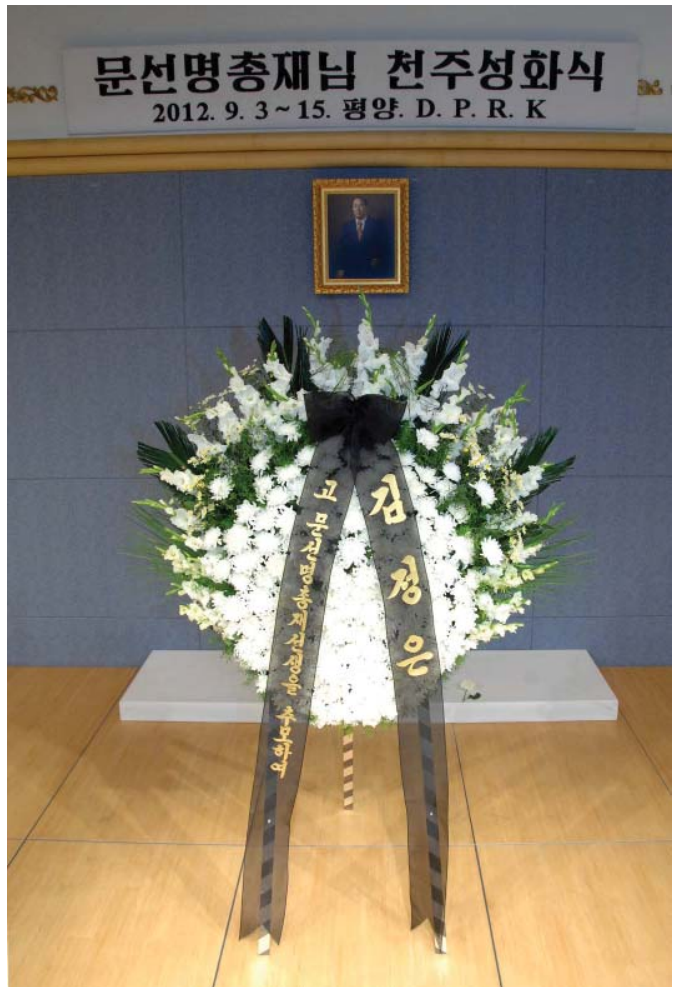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2015년에는 한학자총재와 유가족들에게 세계평화련합 전 총재 문선명선생의 서거 3년에 즈음하여 한학자총재와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문선명선생

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 나라의 통일과 세계평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자신께서는 한학자총재와 유가족들이 문선명선생의 유지를 계속 이어가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조전을 보내주시였다.

정녕 세월이 흘러가도 변하지 않고 끝없이 베풀어지는 고귀한 믿음과 사랑이다.

어지러운 과거를 불문에 붙이시고 통일애국의 길로 손잡아 이끌어주신 절세영웅의 한없이 넓은 도량과 포용력이 있어, 비록 크지는 않아도 조금이라도 조국통일성업에 기여한 사람이라면 잊지 않고 민족이 알고 후세가 기억하도록 영생하는 삶을 안겨주시는 위대한 사랑의 손길이 있어 문선명선생만이 아닌 수많은 통일애국인사들이 민족의 화해와 단합, 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기어올려 노력과 공적은 길이 전해지고있다.

본사기자 주일봉



경애하는 김정원수님께서는 문선명선생이 병환으로 사망하였을 때 보내주시신 화환(2012년)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는 세계평화련합 전 총재 문선명선생의 서거 10년에 즈음하여 13일 유가족들에게 추모전문을 보내었다. 추모전문은 다음과 같다.

## 문선명선생의 유가족들에게

세계평화련합 전 총재 문선명선생의 서거 10년에 즈음하여 한학자총재와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문선명선생의 유지를 이어가시는 세계평화련합의 모든 일이 잘되어나가기를 바라며, 민족의 화해와 단합, 나라의 통일과 세계평화를 위하여 기술인 문선명선생의 노력과 공적은 길이 추억될것입니다. 문선명선생의 유지를 이어가시는 세계평화련합의 모든 일이 잘되어나가기를 바라며, 민족의 화해와 단합, 나라의 통일과 세계평화를 위하여 기술인 문선명선생의 노력과 공적은 길이 추억될것입니다. 문선명선생의 유지를 이어가시는 세계평화련합의 모든 일이 잘되어나가기를 바라며, 민족의 화해와 단합, 나라의 통일과 세계평화를 위하여 기술인 문선명선생의 노력과 공적은 길이 추억될것입니다.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주제 111(2022)년 8월 13일



다들 뭐 하러 왔어? - 김민환의 정치칼럼

윤석열역적패당이 미국상선의 특 등노복으로서의 본 색을 여지없이 드러 내고있다.

최근 남조선외교 부장들이 윤석열역 도에게 앞으로 추진 할 《7대국정과제》를 담은 2022년도 대외정책추진에 대 한 업무계획을 보고 하면서 《한미동맹 중심의 당당한 외교》기조로 주변 《4강외교》를 추진 하겠다고나니,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의 공조밑에 《북미 협화》를 실현하며 북의 《도발》에는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할것이라느니 하는 립장을 밝힌것이 그러하다.

한마디로 미국을 비롯한 외세와의 《공조》로 공화국에 대한 고립압박의 도수를 높이는데 필 요한 국제적환경을 마련하겠다는것인데 세상이 어떻게 돌아 가는지, 제 처지가 어떤지도 모르고 헤 덤비는 가련한 추태 라 하겠다.

오늘 국제무대에 서 미국의 패권적 지위가 갈수록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나라들이 자기 시대를 다 산 미국에 등을 돌리고 국익우선의 외교 를 지향하고있다.

그런데 유독 윤석열역적패 당만이 미국이라는 상선의 바지거랭이를 부여잡고 한사 코 매달리는 머저리짓을 일삼 고있는것이다.

윤석열역적패당이 《한미 동맹》강화를 앞으로 추진할 《7대국정과제》의 첫번째 순 위에 놓고 명실상부한 《세계 적인 전략동맹》으로 확대발 전시켜나갈것이라느니, 미국 의 가치외교와 인디아태평양 전략의 요구에 맞게 지역별협 력관계를 유지해나갈것이라느 니 한것은 명백히 미국에 대 한 맹목적인 추종과 뼈속까지 체질화된 사대굴종적본성의 뚜렷한 발로이다.

이뿐이 아니라.

이번에 역적패당은 《한일 관계》개선을 위해 결립돌로 되고있는 현안문제를 우선 해 결하여 쌍방사이의 친서 회를 회복하고 미래지향적협 력을 이룩하는 방향에서 관 계개선을 성사시킬것이라고 하면서 우리 민족의 친년속 적인 일본과도 서슴없이 손 잡을 기도를 로골적으로 드러 내었다.

이것 역시 권력유지와 동 족대결야망실현을 위해서라 면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해 치는 그 어떤짓도 서슴치 않 는 윤석열역적패당의 추악한 본색을 그대로 드러냈으므로 된다.

오늘 남조선에서 윤석열역 적패당에 대한 각계층의 저 우와 규탄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가고있는 가운데 역적패 당은 심각한 통치위기에 직 면하고있다. 최근 역도에 대 한 지지가 20%대까지 떨어지고 지어 보수세력내에서 까지 역적패당을 비난하는 목소리들이 울려나오고있는 것이 그것을 보여준다.

막대한 궁지에 몰린 윤 석열역적패당은 보다 로골적 인 친미, 친일일변도의 대 외정책으로 파멸의 위기에 직면한 지들의 가련한 처 지를 모면해보려 하고있는 것이다.

남조선을 미국의 영원한 식 민지로 내맡겨서라도, 민족 의 친년속적과 손을 잡고서 라도 통진동화에 몰린 허수 아비 《정권》을 유지해보겠다 는것이 역도의 속심이다.

그러나 이것은 어리석기 짝 이 없는 망상이다.

동족을 적대시하고 민심을 등지면서 외세에 빌붙어보았 겠자 중당에 차레질것은 리 승만, 박정희, 전두환, 리명박, 박근혜등을 비롯한 선형독재자들이 면치 못했던 비참한 운명밖에 없다.

한 광 일

윤석열역도가 노는 풀이 갈수록 가판이다.

《내부총질》이라는 통보 문으로 《국민의힘》을 벌동 지처럼 만들어놓은 역도가 얼마전에는 《대통령》직속 위원회로 《국민통합위원회》라는것을 정식으로 발족시킨 것이다.

윤석열역도가 아무리 《국민 통합》에 대해 외위대도 그 것이 한갖 기만적인 언사에 불과하다는것이 세간의 일 치한 평가이다.

인제 사회가 적대계급으 로 분열되었고 《너를 해 치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는 약육강식의 법칙이 작용 하는 남조선에서 모든 사람들 을 아우르는 《국민통합》이란 어불성설이고 한갓 그림 의 떡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 의 역대 통치배들은 민심을 기만하고 권력야망실현을 위 해 이런 말장난을 끝잘 해 왔다.

《사회대통합》과 《대국

민통합》을 부르짖으며 권력 의 자리에 제바라오며 리명 박역도도 그랬고 박근혜역 도 그랬다.

리명박의 집권기간 남조선 은 《리념의 랑국화》, 《소 득의 랑국화》, 《지역의 랑 국화》 등 온갖 사회적으로나 개인들이 더욱 격화되었다.

《유신》과 《파쇼독재》를 부활시 켜 박근혜역도 역시 집권기 간 진보세력들에 대한 파쇼 적탄압과 인민들의 생존권을 탄압말살하고 사대대국적지 며 반인민적인 약정으로 사 회적모순과 갈등을 심화시키 고 빈부의 격차를 하늘땅차 이로 만들어놓았다.

박근혜가 떠들던 《내 꿈 이 이루어지는 나라》는 최 순실과 같이 한중도 안되는

《대통령》이라는게 실지 하는 일을 따져보면 복과 주 민, 여론의 눈치를 살피는것 뿐이다.

경제문제는 당장 해결될 가 망이 없고 《대북》문제도 더 이상 서둘러 건드렸다가는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는 시 한란이고...

그렇다고 계속 속수무책하 면 안된다. 무슨 변통이 있 어야 하겠는데...

취부러지는 비발의 운무속 에 뿌연계 안겨오는 통산공 원을 바라보던 윤석열역도의 팔알눈이 째짜게 돌아간다.

《대통령》이라는게 실지 하는 일을 따져보면 복과 주 민, 여론의 눈치를 살피는것 뿐이다.

경제문제는 당장 해결될 가 망이 없고 《대북》문제도 더 이상 서둘러 건드렸다가는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는 시 한란이고...

그렇다고 계속 속수무책하 면 안된다. 무슨 변통이 있 어야 하겠는데...

취부러지는 비발의 운무속 에 뿌연계 안겨오는 통산공 원을 바라보던 윤석열역도의 팔알눈이 째짜게 돌아간다.

《대통령》이라는게 실지 하는 일을 따져보면 복과 주 민, 여론의 눈치를 살피는것 뿐이다.

경제문제는 당장 해결될 가 망이 없고 《대북》문제도 더 이상 서둘러 건드렸다가는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는 시 한란이고...

그렇다고 계속 속수무책하 면 안된다. 무슨 변통이 있 어야 하겠는데...

취부러지는 비발의 운무속 에 뿌연계 안겨오는 통산공 원을 바라보던 윤석열역도의 팔알눈이 째짜게 돌아간다.

《대통령》이라는게 실지 하는 일을 따져보면 복과 주 민, 여론의 눈치를 살피는것 뿐이다.

경제문제는 당장 해결될 가 망이 없고 《대북》문제도 더 이상 서둘러 건드렸다가는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는 시 한란이고...

그렇다고 계속 속수무책하 면 안된다. 무슨 변통이 있 어야 하겠는데...

취부러지는 비발의 운무속 에 뿌연계 안겨오는 통산공 원을 바라보던 윤석열역도의 팔알눈이 째짜게 돌아간다.

《대통령》이라는게 실지 하는 일을 따져보면 복과 주 민, 여론의 눈치를 살피는것 뿐이다.

경제문제는 당장 해결될 가 망이 없고 《대북》문제도 더 이상 서둘러 건드렸다가는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는 시 한란이고...

그렇다고 계속 속수무책하 면 안된다. 무슨 변통이 있 어야 하겠는데...

취부러지는 비발의 운무속 에 뿌연계 안겨오는 통산공 원을 바라보던 윤석열역도의 팔알눈이 째짜게 돌아간다.

《구결절》



요즘 경기도 평택의 배서 문중에게 큰 변화가 님다 합니다.

무슨 변인가요?

글쎄 얼마전 배서문중족보 에 불철개는 느닷없이 이름 을 올렸는데 허 참. 그의 인 물자료가 얼마나 가관이었습 니까?

이름: 배지성  
민족별: 아일랜드족  
사는곳: 워싱턴 D.C.  
아무러 생각해보도 가늠 이 안간단가요?

그가 바로 저 태평양너머 의 백악관주인입 니다.

대대로 자기의 성과 본을 중히 여기며 가문이 배출한 명인과 기 인들을 족보에 기록하고 후 손들에게 자랑하는 평택 배 서문중이 고보면 정말 이런 변고도 또 어디 있었습니까? 어느 시렁행이가 이런짓을 하였는가구요?

물론 남조선에서 친미주 구로 공인된 윤석열패당이 지요.

정말 기막힌 일입니다. 하기는 역도의 성장과정을 보면 별로 놀라울 일도 아 니합니다.

윤석열은 코흘리개때부터 숭미, 친미, 공미가 체질화 되었다고 합니다.

하라는 공부는 죽도록 싫 어하면서도 유독 《미국식사 유민주의》, 《미국식시장 경제》만은 쉬파리가 법밖에 달라붙듯 관련책들을 늘 기 고다녔고 미국대통령 프 드가 서울에 날아들었을 때에 는 김포비행장까지 달려가 성조기를 흔들었다나요.

미국것들이 쓴 《선택할 자유》, 《자유론》을 보풀

7~8월의 철장구름이 무겁 게 드리운 아침바람.

창살같은 소낙비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사정없이 쏟아 져내린다.

《대통령실》이 들어앉은 이진 국방부청사의 벽체며 옥상이며 창문이며 하는것들이 흠뻑 젖어 후줄근해진 형 태가 어떨듯이 보인다.

2층에 있는 《대통령》사 무실의 여기저기에 놓여있는 사무책상과 쓰파라, 벽장과 원탁들도 소낙비의 세례를 받고있는 듯 기를 펴지 못하 는것같다.

어두스근한 방안에 탁상등 의 희끗한 빛만이 의자에 비 스투들러 앉아 음울한 표정으로 창밖을 응시하는 윤석열 역도의 주름진 눈가장자리를 비치고있는데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역도는 기울어진 머리의 판 자노리를 손가락으로 짚느르 며 시름깊은 생각에서 잠쳐 버텨나지 못하고있다.

권력을 차지한지 불과 2개 월만에 30%대로 곤두박질한 지지율이 급속도로 떨어지 어는 20%대라는 역대 최악 의 바닥을 치고있었던것이다.

《조, 중, 동》을 비롯 한 주요신분들과 《KBS》, 《MBC》 등의 방송사들이 떨쳐나 저저마다 특종뉴스감. 1면 보도감으로 장식하는가 하면 《능력과 자질이 문제》 이라느니, 《집권 근 100일도 안되어 최악의 지지율을 기록》하고있다느니, 《집권 5년

《반레로진》의 미명하에 야가나스나를 사람 맞살 패화로 만들어놓은 장본인 도, 우크라이나전쟁의 막후 조종자도, 아시아태평양지역 에 대한 제2의 낙조작책동 으로 지역정세를 격화시키고 있는 주범도 다름아닌 미국 인이다. 그런데? ...

정말 민족의 수치고 특 등대양거가 불명합니다.

상진의것이라면 무력대고 승상하고 추종하는 윤석열 인이라 나중에는 바이든의 모든것을 그대로 답아가고있 습니다.

바이든으로 말하면 미국 력사상 79살의 《최고령대 통령》으로서 건강이상세를 명명합처럼 당고다니는 치매증 환자가지요.

며칠전에는 《COVID-19》에 계속 감염되어 조소와 망 신을 자초하기도 하였지요.

바이든의 로쇠하고 폐쇄한 로안이아말로 몰락하는 미국 의 자화사비라 하겠습니까.

거듭되는 금융위기와 세 계최대의 군사비지출, 세계 를 휩쓰는 악성전염병사태와 그로 파생된 경제위기로 하 여 지금 미국의 처지는 형 언할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 습니다.

윤석열이 노는 풀을 몇타 하겠습니까?

어떻치만할 말실수로 사람 들을 아연케 하고 무지무능 과 독선정치로 민생대란, 경 제대란을 몰아오는지 하면 외세와 아합하여 민족의 존 엄과 리익도 서슴없이 팔아

보고 소경 장도칼 휘두르듯했지만 정작 들어온것은 예상밖 의 밀시와 참관관 수직뿐이었고 당장 전쟁이 터진다는 아우성뿐이 아닌가.

윤석열역도는 느닷없이 《대통령》자리에 들어앉은 후 때없이 그리워지는 검사시 절이 떠올랐다.

그때는 하고싶은것을 다 했고 정치인인대 대기업가든 일단 목욕을 떠들 마음먹은 대로 주물러냈다.

갑자기 주먹이 근질근질하 다가 저도 모르게 솟구치는 야성에 허공을 향해 주먹질 을 해대며 한참 돌아다니 땀 발이 선다.

씩씩거리는 거센 숨소리 그 리고 침묵... 생각이 이어진다.

얼마전 당대표 리준석에게 내린 당원권정지결정이 불현 듯 떠올라온다 《한책》이 워 니 하던것들도 모두 감옥에 처넣어야지!

드디어 옛날 《칼잡이》시 절의 기운이 치솟는 패감에 윤석열역도는 흥얼흥얼 코노 래를 불렀다.

마치 형세를 반전시킬 신동 한 방책이라도 찾은것처럼... 사무탁에 쌓인 문건들을 이리저리 뒤적이지는데 어느새 들어왔는지 4마리의 애완용 개들이 주위를 맴돌았다.

《오, 너희들이 왔니!》  
윤석열역도는 흠뻑해서 서 로 다른 애완용개들을 쓰다 들어준다.

《대통령》에게는 개들이 많다는 만족감에서였다.

\* \*  
《어떻게 젊은 당대표를 토 사구팽(토기를 잡은 다음 물

이에 리용했던 개도 잡았다 는 뜻)할수 있는가?》, 《리 준석이 (양두구육) (양대가 리 걸어놓고 개고기를 판다는 뜻)하지 말라고 함의》, 《리준석을 제버린 윤석열 은 대통령이 아니라 조폭이다.》, 《집권총내부에 각종 내부총질과 폭탄발연으로 포 연이 자욱하다.》...

비시실장이 다급히 뛰어들 어와 윤석열역도와 권선동사 이의 통보내내유 개죽되어 정계와 사회 각계가 죽가마 뿔뿔한다고 알려진것은 그로 부터 몇시간이 지나서였다.

미련한 권선동이 각성없이 《국회》회관에서 손전화기로 통보문을 작성하던 그 순간 출입기자들의 카메라에 포착 되어 그렇게 되었다는것이다.

벌써부터 《국민의힘》당원 계사관에는 《실망감과 절망 감을 감출수 없다.》, 《우 리가 지지한 대통령이 맞는 지 정말 허무하다.》, 《30년 간 지탱해온 보수정당에 대 한 지지를 철회하겠다.》, 《사교물치인 당지도부는 총 사퇴하라.》는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야당들과 각계층 의 비난공세도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윤석열역도는 또다시 신경 이 뻗뻗해지면서 눈앞이 어 절어절해지는것을 어쩔수 없 었다.

(갈수록 침침준산이라더 니...)

좀 뜸해지는듯싶던 비줄기 가 또다시 작살처럼 내려쬐 히기 시작하였다.

마치 역도의 몸통이 그 대로 내려박히기라도 하듯...  
함금성

천하 보기 드문 《효도품》

제로 모방하였는가 하면 《대통령실》의 인사검중체 제 역시 미국식 사법성인사 검중체제로 바꾸느라 설쳐댄 것만 보아도 잘 알고도 남음 이 있지요.

제 조상이 지어준 이름 석 자도 하루아침에 미국식으 로 《미스터 윌》으로 고쳐 불리 《통신의 미국인》으로 둔갑하였고 바이든의 서울 행다가 미국국가가 연주되 자 가슴에 손을 얹고 눈을 지그시 감은채 입속으로 중 영중영 따라부르는 노죽을 부리며 만경의 이마살을 쪼 프르게 한것도 다 아는 사 실입니다.

친미, 친미...  
이 두 글자를 반대로 바 꾸어놓으면?! 그렇지요, 미 친이 되지요.

정말 미국에 미쳐도 발 끝까지 미쳐버렸다 하겠습 니다.

미국이라면 무력대고 순종 하고 추종하고 굴종하고 맹

순 뜻인가구요.

한자로 보면 《당 지》자 에 《별 성》자라고 합디다. 풀이해보면 하늘과 땅 을 하나로 있다는 의미 인 《지구》의 별》을 뜻하는 데 제임스강 바이든이 세계 평화를 위해 노력한 공적이 후세까지 전해지기를 바 라는 마음에서, 또 조선반 도평화 《수호》와 세계평화 유지에 더 힘써줄것을 바라 는 의미에서 그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또 어찌 보면 미국에 지성 을 다하였다는 맹약의 뜻도 있는것같구요.

정말 단단히 미쳤지요.

바이든이 조선반도평화를 《수호》하였더니요? 또 세 계평화에 기여합디나요?

바이든이 집권해서 한것이 란 북한전쟁연습화대, 핵동 력함공모합전단의 남조선전 계 등으로 조선반도정세를 격들의 위기상황에 몰아넣 은것뿐이 아닙니까.

미국식사 유민주의》, 《미국식시장 경제》만은 쉬파리가 법밖에 달라붙듯 관련책들을 늘 기 고다녔고 미국대통령 프 드가 서울에 날아들었을 때에 는 김포비행장까지 달려가 성조기를 흔들었다나요.

미국것들이 쓴 《선택할 자유》, 《자유론》을 보풀

《국민의힘》이 아니라 사회의 갈등과 대립, 정 치적싸움일만 부추기고 위 기에 위기만 산생시킨것뿐 이다.

바로 그것이 중년층과 녀성 층의 강한 반발을 일으키면 서 세대갈등, 남남갈등을 더 욱 부추겼으며 선거관을 청 년세대 대 중년세대, 남성 대 녀성의 대결구도로 치닫 게 하였다.

취임후에도 마찬가지다. 오만과 만용으로 전 《정 권》을 때려잡는 정치보복을

《국민의힘》이 아니라 사회의 갈등과 대립, 정 치적싸움일만 부추기고 위 기에 위기만 산생시킨것뿐 이다.

바로 그것이 중년층과 녀성 층의 강한 반발을 일으키면 서 세대갈등, 남남갈등을 더 욱 부추겼으며 선거관을 청 년세대 대 중년세대, 남성 대 녀성의 대결구도로 치닫 게 하였다.

취임후에도 마찬가지다. 오만과 만용으로 전 《정 권》을 때려잡는 정치보복을



# 인원으로 보는 권익한 두 현실

## 집집마다에 꽃피는 행복의 웃음

오늘날 지구상의 곳곳에서는 집없는 사람들의 비탄에 잠긴 목소리와 환송소리가 날로 더욱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국가가 인민들의 살림집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나가는 공화국에서는 살림집창가에서 울려나오는 인민들의 행복넘치는 웃음소리가 그칠새 없다.

공화국에서는 일제기 인민들의 살림집문제해결을 중요한 국책으로 내세웠으며 국가에서 인민들에게 살림집을 무상으로 배려해줄데 대하여 헌법에도 명시하였다.

하기에 이 땅에서는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웬만한 권력가나 재산을 가지고있는 사람들도 사기 어려워하는 멋진 고풍, 초고층살림집을 평범한 근로자들이 무상으로 국가로부터 배정받아 쓰고 살고 있다.

평양의 풍치수려한 보통강반에 눈부시게 일떠선 인민의 호화주택, 사회주의변화기에 입사한 주인공들이 바로 그러하다.

직기앞에서 온종일 달리고도 퇴근시간이 되면 떠나기 아쉬워

하던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의 직공 리명순, 40여년간 두줄기 케도를 따라 달린 평양철도국 서평양기차관차 기관사 김명인, 눈비오고 바람세차도 어느 하루 빠짐없이 도로관리를 해온 평천구역도로시설관리소의 조길녀, 수십년간 《웃음배낭》을 메고 경제선동의 복소리를 울려온 중앙예술경제선전대의 배우 리순홍, 림뭇무게도전차사업소의 공훈자동차운전사들이 최홍기, 허명금부부, 수신태세월 교단을 지켜온 교육자들이 한철호, 문성심부부... 이 세상에 나라는 많고많은도 국가가 인민들의 살림집문제해결을 최우선과제로 내세우고 전적으로 해결해주는 나라, 평범한 근로자들이 호화주택의 주인으로 되는 인민의 나라가 또 어디 있었는가.

하기에 행복의 보금자리에서 터치는 인민들의 진정에 넘친 목소리가 이 땅 그 어디에서나 울림이 메아리치고 있다.

공화국에서 최우선과업으로 내세우고 펼쳐는 살림집건설은 어떤 경제체제리득을 위한것이 아니라 철두철미 국가의 재부와 근로대중의 창조적노동의 결과라고 느낀 인민들이 살고 있다는 현실은 오직 인민을 하늘처럼 떠받드는 사회주의 내 조국에서만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집에서 나와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현실은 오직 인민을 하늘처럼 떠받드는 사회주의 내 조국에서만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공화국에서 최우선과업으로 내세우고 펼쳐는 살림집건설은 어떤 경제체제리득을 위한것이 아니라 철두철미 국가의 재부와 근로대중의 창조적노동의 결과라고 느낀 인민들이 살고 있다는 현실은 오직 인민을 하늘처럼 떠받드는 사회주의 내 조국에서만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사회에서 태어났다면 로동자부부인 지희들이 이런 집에서 살 꿈이나 꾸어보았겠습니까.

《화력발전소의 평범한 로동자인 저에게도 나라에서는 이렇듯 훌륭한 집을 무상으로 안겨주었습니다. 요즘은 인생의 행복이란 바로 이런것이지나 하고 생각하곤 합니다. 일을 해도 힘들지 않고 늘 마음은 즐겁고 기쁩니다.》

《집이 크고 방의 칸수도 많아서 처음 집에 찾아오는 손님들은 나가는 문도 잘 찾지 못합니다. 정말 나라에서 마련해주고 우리 집이 제일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집에서 나와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현실은 오직 인민을 하늘처럼 떠받드는 사회주의 내 조국에서만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 네 품에선 누구나 희망의 노래 퍼고 바라던 모든 꿈이 꽃피어나네 우리 당 지켜주는 행복넘친 집 사회주의 사회주의 우리 너를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회주의 내 조국을

얼마전 남조선에서 집집적으로 내린 폭우로 하여 술한 건물들이 물에 잠기고 인명피해까지 났다. 그중에서도 누구보다 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집 아닌 집에서 살던 불쌍한 서민들이었다.

서울 관악구에서 살다가 폭우로 인한 침수로 사망한 장애자가족의 경우가 그러하다. 이들이 목숨을 잃게 된것은 다름아닌 온전한 집이 없었기때문이었다. 집 아닌 아파트밀의 반지하층에서 부대끼다가 새창개 밀려들어오는 비물의 압력으로 현관문을 열지 못하고 숨이 죽었던 것이다.

작은 몸 하나 담을 집이 없어 불행과 고통, 절망속에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어찌 이틀만 이랴.

《여기는 종로 쪽방촌이다. 대낮에도 어두컴컴한 골목에 사람들이 군데군데 앉았이는 광경이 흡사 사창가같다. 금시라도 무너질듯한 건물외벽엔 나무사다리들이 엉켜있다.》

《집이랑도 할수도 없다. 4평 공간에 방을 12개나 만들었다. 화재도 잘 나고 가림막들이 얇아 옆집소음도 크다. 이것도 집이라고 할수 있나. 그냥 하룻만 가리고있는것이다.》

이것은 남조선의 어느 한 잡지에 실린 서울의 쪽방촌실례이다. 복도를 가운데 두고 여러세대가 사는데 제각기 1호실, 2호실 하는 식으로 방번호를 붙였다. 0.5~1.5평의 방에 위생 및 세면시설이 한곳에 같이있고 부엌과 방이 따로 없다. 한두명이 앉거나 누워도 숨이 가쁘면 어떤 집에서는 4명도 산다. 민민들이 사는 이런 쪽방촌이 서울에 만도 수두룩하다고 한다.

그뿐이 아니다.

남조선에서는 땅세, 집세를 비롯하여 하늘높은줄 모르고 뛰여오르는 거주비용을 감당하기

가 어려워 살던 곳을 버리고 떠나는 사람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에 대해 남조선언론 《한겨레》는 미천듯이 오르는 거주비용 부담에 쫓겨워 거주지를 옮긴 사람들이 헤아릴수 없이 많다고 하면서 이들이야말로 현대판 《난민》들이라고 개탄하였다.

하루밤을 자고나면 또다시 뛰

지 않고있다.》라고 격분을 표시하였다.

미천듯이 오르는 거주비용에 쫓겨 자그마한 살던 곳을 떠나가는 현상은 서울만이 아닌 다른 지역들에서도 우습하게 나타나고 있다.

남조선에서는 일반근로자가 20평정도의 집을 사려면 먹지도 쓰지도 않고 돈을 고스란히 모아도 한세기는 걸려야 할 정도라고 한다.

오죽하면 서민들속에서는 《내 집마련 평생소원》이라는 절망의 목소리가 류

## 한평생에도 이룰수 없는 《내 집마련의 꿈》

여오르는 집값, 이에 대해 남조선사람들은 《미친 집값》이라고 울분을 터치고 있다.

한 시인은 《우리 부부는 모두 정규직인데도 서울에서 집을 산다는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국민들의 피땀을 짜내 걸어들이는 세금에서 우리들에 비해 몇백배절이나 많은 월급을 독 메먹는 당국자들이 아무런 실질적인 대책조차 취하

행처럼 나들것는가. 돈많은자들은 천문학적액수의 돈이 드는 호화주택을 곳곳에 마련해놓고 호의호식하고있지만 절대다수 근로대중은 한칸짜리 제 집도 없으며 겨울날에도 한지에서 밤을 지새워야 하는것이 바로 부의부, 빈익빈의 사회인 남조선사회의 참담한 현실이다.

본사기자



이 매우 드물었다.

그런데다가 적들의 함포사격이 그칠새 없었고 밤에는 섬에 등지를 틀고있는 적들이 도적고양이마냥 무시로 물에 기여올라 로켓탄을 일삼고 있어 일군들은 넓은 땅이 목고있어도 전쟁시기여서 어쩔수 없는것으로 여기고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위대한 수령님께서 인민들에게 사철 과일을 넉넉히 먹이시려고 바로 그 지대에 국영과수농장이라는 대과수기지를 창설하시길 구상을 펼치고계시니 이 얼마나 가슴벅찬 일인가.

진정 나라의 운명을 판가리하는 전쟁시기 전선작전도 아닌 과수원을 조성하여 후대들에게 넘겨주기 위한 만민대계를 펼치신 위대한 사람의 이야기는 세기를 이어가며 오늘날도 길이 전해지고 있다.

본사기자

## 늘어나는 첫제품생산기지들

공화국의 육아법에는 이런 조항이 있다.

《국가는 어린이 영양식품의 생산 및 공급체계를 전면적으로 보장하며 모든 어린이들에게 첫제품을 비롯한 영양식품을 무상으로 정상적으로 공급하며 가장 훌륭한 양육조건을 보장하도록 한다.》

진정 후대들을 위하여 국가가 당하는 손실은 손실이 아니며 어린이들을 위해 더 많은 자금이 지출될수록 조국의 미래가 밝아진다는 경에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숭고한 후대관이 육아법의 조항들에 그대로 어려 있다.

어찌 있을수 있겠는가.

뚝뚝 보전위가 조성되었을 때에도 전국의 어린이들에 대한 애기짓가루, 암가루공급을 중단없이 진행하도록 즉시적인 조치도 취해주시기 위한 어머니의 그 사랑.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전원회의에서 국가적부담으로 전국의 어린이들에게 첫제품을 비롯한 영양식품을 보장할데 대한 결정이 채택된 때로부터 1년이 흘렀다.

나라의 미래인 어린이들을 억만금을 들여서라도 튼튼하게 잘 키우는것을 최우선정책으로, 최고의 속력으로 내세우시는 경에하는 원수님의 령도밑에 공화국에서는

어린이들에게 첫제품을 정상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생산과 공급이 전당적, 전국적, 전사회적인 사업으로 전환되고 정연한 체계가 수립되었다.

뿐만아니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6차회의에서 최고인민회의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육아법을 채택함에 대하여》가 채택됨으로써 어린이들에게 첫제품을 비롯한 영양식품을 국가적부담으로 공급하며 훌륭한 양육조건을 보장해주시기 위한 법률조항도 마련되었다.

지난 한해동안 모든 도시, 군들에서 지역내 첫제품수요를 충족시킬수 있는 첫제품생산 및 가공기지를 신설, 확장하는 사업이 힘있게 추진되었다.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전원회의의지후 평양시 은정구역에서는 50여일동안에 첫제품기지를 갖춘 훌륭한 염소목장을 새로 일떠세우고 첫제품생산에 진입하였다.

평양북도에서는 생산건물들과 설비들이 장비된 새 첫제품목장을 자체의 힘과 기술로 건설하여 첫제품생산능력을 크게 확장하였으며 함경북도와 함경남도에서는 규모가 큰 목장으로부터 시, 군, 협동농장들의 축산기지에 이르기까지 능력을 확장하고 첫제품생산능력을 정비보장하는 등 필요한 조치들을 적극 따라 세웠다.

현존축산기지를 활발히 운영하여 첫제품생산능력을 높이기 위한 혁신적인 대책을 실행시킨 자장도에서는

중전보다 하루 2배이상의 첫제품을 생산하여 타카소, 유치원들에게 보내주었다.

평안남도에서도 평성, 순천, 안주, 덕천시와 평원, 북창, 대동군 등지에 염소목장들을 지대적특성이 살아나게 일떠세우고 수백정보의 풀밭을 새로 조성하여 첫제품 생산을 늘일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으므로 함경북도와 함경남도, 개성시에서는 축산학적요구에 맞게 건축설계를 작성하고 자력경쟁, 견인불발의 투쟁을 벌여 여러 목장의 신설, 개건공사를 앞당겨 완수하였다.

지대적특성에 맞는 자연 풀밭을 전방성있게 조성하는 한편 목장들의 능력확장목표를 최단기간에 달성하기 위한 사업은 량강도와 강원도 등지에서 힘있게 벌어졌다.

이뿐이 아니다. 첫제품의 질과 생산능력을 결정적으로 높이기 위한 사업이 전국적범위에서 박력있게 추진되었다.

오늘 이 땅에서는 심심산골의 마을과 땅방대해의 외진섬마을에 이르기까지 그 어디나 진함을 모르는 위대한 어머니의 사랑, 후대사랑의 손길이 속속들이 미치고있다.

자애로운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에 의해 마련된 첫제품을 자랑분으로 하여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 공화국 어린이들의 미래는 끝없이 밝고 창창하다.

본사기자 전명진

어느날 아침 부지런히 이 사짐을 꾸리던 나는 허리가 빼근해 안락의자에 털썩 앉았다.

새살림을 시작할지 몇해 안되는데 그사이 무슨 점이 이리도 많이 생겼을까 하는 생각이 들자 입가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피어올랐다.

두리번두리번 방의 이구석 저구석을 살펴보면 나의 눈길은 문득 전화선에 붙어있는 전화번호가 적힌 한장의 종이장에 가뒀다.

빨간색, 파란색 원주필로 포박포박 적어놓은 전화번호들은 모두 안개가 자주 번개하던 사람들의 번호였다.

안해의 필적을 보니 집사람의 얼굴이 새삼스럽게 보고 싶었다.

마치 안해의 사진이라도 들여다보듯 나는 그 전화번호를 하나하나 읽어내었다.

《진일아버니, 그것은 우리 인민반장의 집전화번호였다. 몇해전 내가 집에 이사오는 날 인민반사람들과 함께 찾아와 두팔을 걸어올리고 집도 풀어주고 방안정돈도 해주던 마음씨무뎠던 너인, 그때로부터 오늘까지도 집에 간장, 된장이 떨어질새라 깊은 관심을 돌려주는 너인, 건국이래 대동란이라고 불렀던 지난 5월에도 알아주는 안해의 입맛을 돌려세워

주겠다고 여러가지 음식들을 만들어가지고 끼니때마다 찾아오던 어머니같은 너인이었다. 전화번호후에 그의 푸수한 얼굴이 떠오르자 마음이 뜨거워졌다.

《국철과장, 그것은 구역인민위원회에서 사임하는 일군의 사무실전화번호였다. 안해의 생일날은 물론 명절날, 휴식일에도 여러가지 식

물과 담 두누보다 이 질문을 맨 먼저 두드리고 들어서 않는데는 없는가 구체적으로 알아봐주고 퇴근후에도 자주 건군을 넘겨주어 전화를 걸어오는 너의사이다.

그아래에 적혀있는 《진정선생》도 진로소 산부인과 의사이자 골 안해를 담당하는 인같은 선생이다. 안해의 불임증을 치료해주기 위해 그

전쟁승리를 위해 필요한것은 식량이었지 사과나 배와 같은 과일은 아니라 배와 같은 과일이 있었으면 좋았을것이다.》

그리고는 송화, 은물지방은 과일이 잘된다고, 풍천일대에 지금부터 과수묘목을 심어놓았다가 전쟁이 끝난 다음 큰 국영과수농장을 내오면 이 일대를 이름난 과일생산기지로 전변시킬수 있다고 힘주어 교시하시었다.

그의 가르치심을 받아안은 일군들은 뚫어오르는 감격을 억제할수 없었다.

당시 풍천일대는 전선시기가 해안지대로서 그곳 농민들은 안전지대로 옮겨왔고 극히 필요한 인원만 남아있어 인적

조각을 두드리고 들어서 않는데는 없는가 구체적으로 알아봐주고 퇴근후에도 자주 건군을 넘겨주어 전화를 걸어오는 너의사이다.

그아래에 적혀있는 《진정선생》도 진로소 산부인과 의사이자 골 안해를 담당하는 인같은 선생이다. 안해의 불임증을 치료해주기 위해 그

가 예쁜 노력을 어찌 한두마디 말로 다 전할수 있겠는가.

《평양산원 부인과 과장, 그는 또 어인가. 안해의 편의를 도모하여 자주 집으로 찾아와 치료해주던 친력있고 권위있는 의사. 과연 그를 어떻게 잊을수 있단 말인가.》

《평양산원 6산과, 그것은 내가 세우는 번호였다. 결혼한 아이를 낳을수 없다고 진단받았던 특류영예군인인 나의 안해가 끝끝내 새 생명을 가졌고 며칠전에는 맥동같이 귀한 아들을 낳고 지금 6산과에 입원중이었다. 안해의 순조로운 해산을 위해 의사로부터 조산원, 간

려를 돌려준것이다.

위가일발의 순간 동지들을 구원하고 특류영예군인이 된 안해, 그런 그가 그리도 귀소하고 소중하여 국가에서는 좋은것이 생기면 언제나 제일 먼저 우리 집사람과 우리 가정에 돌려주는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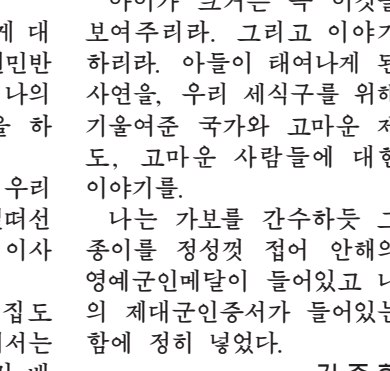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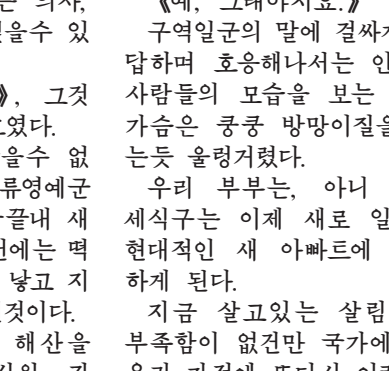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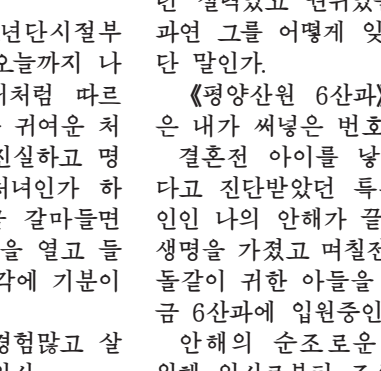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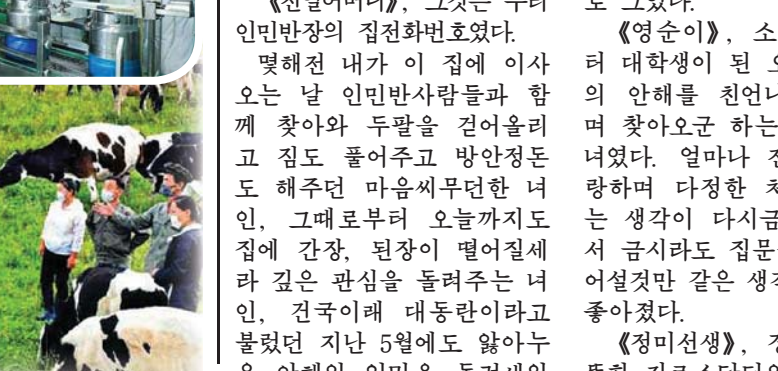
아, 얼마나 고마운 국가의 품에 안겨사는것인가. 얼마나 훌륭한 제도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들과 우리는 함께 살고있는것인가. 나는 그때까지 손에 쥐고 있던 전화번호가 적힌 한장의 종이가 한없이 소중해짐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한 전화번호가 적힌 종이 아니었다. 자기보다 남을 더위해주고 불편한 사람을 먼저 생각해주는 덕과 정으로 화복한 우리 사회의 진보습이 비긴 《사진첩》이었다.

아이가 크거는 꼭 이것을 보여주리라. 그리고 이야기 하리라. 아들이 태어나게 된 사연을, 우리 세시기를 위해 기술어준 국가와 고마운 제도, 고마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

나는 가보로 간수하듯 그 종이를 정성껏 접어 안해의 영예군인메달이 들어있고 나의 제대군인증서가 들어있는 함에 정리 넣었다.

김준혁





# 다양하고 질 좋은 소비품들

## 평양시인민소비품전시회장을 찾아서

지난 12일까지 공화국의 평양제1백화점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관심속에 평양시인민소비품전시회가 진행되었다.

이번 전시회에는 류인신발공장, 평양화장품공장, 평양양말공장 등 경공업공장들과 자기 지역의 특성을 잘 살리

면서 쓰기에 편리한 각종 생활용품들을 만들어내고있는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단위들을 비롯한 수많은 단위들이 참가하였다.

신발, 지은옷, 화장품, 이불류들과 특허제품들, 건강식품을 비롯한 1만 2 300여 종에 38만 9 000여점의 인민

소비품들이 출품된 전시회장은 참관자들로 붐비었다.

우리의 만난 평양시인민위원회의 한 일꾼은 보기에 더욱 좋고 사용하는데 편리한 질 좋은 소비품들이 지난 전시회보다 훨씬 많이 출품되었다고 하면서 인민생활을 하루빨리 향상시킬

데 대한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들의 결정을 받들고 평양시에서 인민소비품의 질을 더욱 개선하며 생산을 지속시켜 줄 것이라고 이번 전시회의 목적이 있다고 말하였다.

늘어난 품종수와 제품의 질도 그리하지만 출품된 제품들이 생산단위들에서 자기 단위의 실정에 맞게 자체의 힘으로 만든것으로 하여 더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김정숙평양제사공장에서 출품한 비단제품들, 선교편직공장에서 생산한 남녀T셔츠들과 갖가지 내의류들, 평양양말공장에서 내놓은 《철쭉》상표를 단 남녀양말들이 참관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그런가 하면 평양밀가루가공공장과 평양강병이가공공장에서 출품한 맛 좋고 영양가 높은 밀가루와 강병이가공제품들도 호평을 받았다. 바삭바삭하면서도 술을 녹아내리는 강병이단튀기와 구

수하면서 맛 좋은 효모빵, 어린이과자, 즉석국수는 누구나 저마다 찾는 제품들이었다.

그뿐이 아니었다. 평천구역안의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한 소쟁이, 접속구, 장통을 비롯한 수직제품들과 생활필수품들 그리고 모란봉구역의 가내작업반들에서 만든 맵시있는 각종 초물제품들도 사람들의 눈길을 모았다.

비록 번쩍거리지는 않아도 자기것에 대한 긍지를 더해주는 제품들을 보면서 참관자들은 제법이 얼마나 좋은가를 피부로 느꼈다.

이번 전시회는 소비품생산자들이 질제고와 원가저하, 새 제품개발 및 원자재의 국산화, 재자원화 등에서 이룩한 서로의 성과와 경험들을 공유하고 일반화하면서 인민들이 즐겨 찾는 명제품을 더 많이 생산하도록 힘있게 추동하는데서 의의있는 계기로 되었다.

본사기자 림광훈



## 속담과 뜻

- ◆ 떡부스레기 모아 빛은 건 떡이 아닌가. 재질이 같은 물건인 경우에는 그것이 비록 옹근것이건, 그 부스레기로 만든것이건 본질에 있어서는 같다는 것을 비겨 이르는 말.
- ◆ 푸른련잎과 흰련꽃이 빛은 다르나 뿌리는 한 뿌리다. 현상은 이리저리하게 다르나 그 본질에 있어서 꼭 같은 것을 두고 비겨 이르는 말.
- ◆ 검정개나 누렁개나 개는 개다. 털이 검은 검정개도 개고 털이 누런 누렁개도 개라는 뜻으로서 겉보기는 다르나 본질은 같다는 것을 비겨 이르는 말.

## 천연기념물

### 백두산들쪽나무

백두산들쪽나무는 량강도 삼지연시 신부성지구에서 백두산으로 올라가는 도로주변에 자연적으로 퍼져있다.

백두산들쪽나무가 자라고있는 주변에는 이갈나무, 자작나무, 구름나무, 황산참꽃 등 다양한 식물이 있다.

이 지대의 토양은 부식층우에 생긴 산림밭색토양이고 기계적조성은 모래메흙이며 부식함량과 누기는 적당한 편이다.

백두산들쪽나무의 평균 높이는 70~80cm이고 제일 큰 나무의 높이는 1m정도이다.

열매의 평균크기는 1.2cm이며 알당무게는 최고 2g정도이다.

백두산들쪽나무는 자연무리특성과 조성을 연구하는데서 중요한 학술적의의를 가진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의의가 있는 들쪽나무의 유일한 천연기념물이다.

본사기자



교육을 우리의 미래를 마음놓고 맡길수 있는 교육으로 만들데 대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무한한 헌신으로 받들어가는 교육자들속에는 사리원시 운하소학교 교원 리명순도 있다.

대학을 졸업하고 교단에 선 첫날부터 리명순은 20여년을 하루와 같이 후대교육사업에 전심전력하였다.

나아온 학생들의 년령심리적특성에 맞게 인식능력을 높여주기 위한 교수방법을 찾아내기 위해 그가 지새운 탐구의 낮과 밤은 무

수하다.

경험이 풍부한 교원들을 찾아가 배우고 새로운 참고도서들을 탐독하면서 교수수법들을 리득하였으며 수십건의 소학교자녀교육의 복습문제들을 실용화, 종합화하였고 학생들의 인식능력과 창조적응능력을 제고할수 있는 100여건의 다매체편집물들을 만들어 교수교양에 리용하였다.

그는 또한 학생들이 실제제작과 토론을 통하여 문제의 본질을 깨닫게 하고 3차원기술을 비롯한 현대교육기술을 적용하여 교수내용을 원리적

으로 인식시키는 우수한 교수방법도 내놓았는데 그 방법은 각지의 소학교들에 널리 보급되었다.

학교적인 교수방법발표회에 내놓은 새롭고 독특한 그의 교수방법은 해마다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많은 제자들이 중앙과 도의 수재양성기지로 선발되었다.

10월8일모범교수자, 2021년 10대 최우수교원의 영예를 지닌 그는 오늘도 후대들을 훌륭히 키우는 사업에서 교육자로서의 책임과 본분을 다해나가고있다.

본사기자

## 청자국화무늬박이병

국화를 무늬박이한 12세기의 푸른자기병이다. 높이가 37cm, 아구리직경 7.4cm이다.

고려도자공예발전에서 가장 높은 경지에 이른 비색무늬박이제품의 하나이다.

청자국화무늬박이병은 배부분 몸체에 세로선 6줄의 골주름과 날씬한 곡선을 이룬 목 그리고 나팔주둥이 등이 잘 조화되어있다.

조선의 맑은 하늘을 형상화한듯한 연한 녹색기가 도는

우아한 바탕색은 검은색과 흰색으로 섬세하게 무늬박이 장식한 국화무늬, 밑부분 가장자리에 규칙적으로 정연하게 돌린 띠꽃무늬 등과 잘 어울려 병의 예술적품위를 한층 높여준다.

청자국화무늬박이병은 형태의 곡선미와 맑고 푸른 바탕, 아름답고 정교한 무늬장식이 유기적으로 통일되어 고려자기의 우수성을 보여준다.



본사기자

## 여름철 피로증과 칼리움보충

여름철의 피로는 대체로 기온이 지나치게 높아 몸에서 다량의 땀이 나가는것으로 하여 초래된다.

땀을 많이 흘릴 때 인체는 다량의 나트륨과 칼리움을 잃게 된다.

이때 칼리움을 제때에 보충하지 않으면 피로와 무력증이 나타나게 된다.

칼리움은 인체에 없어서는 안되는 중요한 성분으로서 근육과 신경의 민감성을

유지, 강화하고 심근의 정상적인 운동기능과 콩팥의 신장기능유지에도 도움을 주며 혈압을 낮추는 작용을 한다.

칼리움이 부족되면 인체의 물질대사가 혼란되고 심장혈관기능이 장애를 받으며 인체의 저항력도 떨어져 쉽게 더위를 먹는다.

그러므로 여름철에 땀을 많이 흘리면 수분과 함께 나트륨보충에 관심을 돌리는 동

시에 칼리움섭취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한다.

칼리움이 풍부 들어있는 음식으로는 수박, 참외, 복숭아, 가지, 시금치, 유채, 미나리, 도마도, 오이, 감, 다시마, 감자, 콩, 버섯 등을 들수 있다.

특히 감, 다시마에 칼리움이 많이 들어있다.

이밖에 물고기, 새우 등에도 칼리움이 풍부 들어있다.

본사기자

## 인종로리 돼지등실사과구이

돼지등실사과구이는 단백질과 당분함량이 높고 유기산과 광물질, 비타민C가 풍부하여 원기와 피로를 회복하는데 좋다.

로리감으로는 돼지고기(등심) 400g일 때 사과 100g, 다진 양파 50g, 풋고추편 50g, 간장 10g, 기름 20g, 마늘편 15g, 소금 2g, 후추가루 1g을 준비한다.

곤으로 묶어 모양을 잡는다. 사과를 곱썬모양으로 썬다.

2. 구이판에 돼지고기를 놓고 그우에 간장을 바른 다음 마늘편, 사과쪽, 풋고추편 등을 함께 놓고 로에서 구워낸다.

본사기자



## 머리가 흔들리는 병 때문에

옛날에 신수를 잘 본다는 한 점쟁이가 있었다.

그는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신수를 안다고 호언장담하였다.

어느날 수심에 잠긴 한 로인이 그를 찾아와 신수를 봐달라고 하였다.

점쟁이는 로인의 관상을 보고 나서 말하였다.

《로인님은 말 못할 걱정거리를 안고왔군요.》

그러자 로인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럼 자식들이 불효하겠구만요.》

이번에도 로인은 고개를 가

로저었다.

《그럼 늘그막에 마누라를 잃었겠군요.》

로인은 역시 고개를 가로저었다.

다 주어졌으나 매번 머리를 가로저으니 점쟁이는 하늘이 무너져 내리겠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로인님은 뒷때문에 짐을 치려고 하시우?》

《아직도 맞추지 못하면서 무슨 짐을 친다고 그래? 나에게는 이렇게 머리가 좌우로 흔들리는 병이 있는데 언젠가 나을가는것을 알고 싶어서 왔소.》

## 사화 마지막 발명품 (5)

### 글 리성덕, 그림 채대성

영실은 그날 종일 우울하게 지내었다. 마음이 까맣모르게 울적하고 산란하였다.

궁담옆에 활짝 핀 불꽃의 향기도 마음을 괴롭히고 산란하게 하는것같았다.

그날 밤은 달이 밝았다. 영실은 피마루에 나왔어 달빛을 하염없이 바라보고있었다. 궁담옆의 복숭아꽃은 달빛을 받아 류달리 하얗게 보이었다.

궁담쪽으로 시선을 돌린 영실은 불현듯 만발한 복숭아꽃들사이로 하얀 소복차림을 하고 환하게 웃는 중년녀인의 모습이 우뚝이 떠올랐다. 그것은 마지막으로 본 어머니의 모습이었다.

관청기생으로 한뉘 고생을 하다가 마흔도 넘기지 못한채 세상을 떠나신 어머니, 그는 아버지를 기억하지 못했다. 다만 어머니가 별스럽게 소복을 입고있었던것이 아버지의 사망때문이었음을 철이 들어서야 깨달았을 정도였다. (영실아, 불쌍한 내 아들이야.)

꿈결에도 잊을수 없는 어머니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울려오는것같았다.

(너는 이 어머니가 친한 몸이었던탓에 훌륭한 재능을 타고났어도 빛을 보지 못하느구나. 아, 원한이 세상이

요, 원한이 인생이로다. 네가 큰 뜻을 품고 모진 마음을 먹었으니 실로 장하다니 나를 기다려 시들어가는 저 옥섬이는 어찌할터이냐. ...)

지도 모르게 벌떡 일어난 영실은 궁담옆으로 허둥지둥 달려가서 어머니의 모습이 비졌던 그 복숭아나무를 부둥켜안고 몸부림쳤다.

(아, 어머니, 불쌍한 어머니!)

그의 두볼로는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걱정마세요. 이제 이 영실 이도 판도가 아니에요. 힘껏 일하여 큰 공을 세우겠어요. 하지만 제발 옥섬이의 일은 잊으세요. 저는 잊으려 합니다. 아니 잊을때야 잊을수 없습니다. 아마도 그런 운명이요 모양입니다.)

몸부림치는 그의 잔등에 하얀 복숭아꽃잎이 흩날려 떨어졌다. 진정 아름답고 향기그윽해도 서리처럼 차갑게 느껴지는 꽃잎이었다. 영실의 눈앞에는 지나간 나날들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동태의 진산인 소산의 한 지맥이 흘러내려 이루어진 나지막한 등성이... 이곳에서 영실의 소꿉친척이 흘러갔다. 영실을 모르고 즐겁게 뛰놀던 그 시절은 실로 잠깐이었다. 그는 너무도 일찍 철이

들었다.

《홀어미자식》이라는 말의 모욕적인 의미를 뼈저리게 느낄 때쯤 되자 노비신분의 무서운 올라미속에 든 제 처지도 깨달을수 있었다.

열여섯살 잡히던 해에는 친한 동무들도 그에게서 멀어지는듯했다.

호적에 오른 그들은 모두 호패를 차게 되었으나 호적에도 없는 영실에게는 호패가 있을리 없었다. 그와 동무들과의 사이에는 어느새 엄연한 간격이 생겼다. 그는 관청비안(관청노비대장)에만 친한 이름 석자가 씌여져있는 자기 처지의 불행함을 통절하게 느끼었다.

영실은 갑자기 이 세상에 저 혼자 외롭게 남을것같았다. 그는 동무들을 만나려 하지 않았고 동무들도 역시 그를 찾아오지 않았다.

하지만 한 처녀만은 전보다 더 그를 정답게 대해주었다. 가장 살뜰한 심정으로 위해주었다.

영실은 처녀의 그 비단결같은 마음에 가슴이 후두둑저서 뜨거운 눈물을 흘린적도 있었다.

바다가 가난한 어부의 집에서 나서자란 처녀는 남달리 건강하고 역면에서도 마음씨는 부드러웠다. 웃을 일

이 있으면 허리가 꺾이지게 웃었고 울 일이 있으면 가슴이 찢어질듯이 울었다. 정녕 천성이같이 뜨겁고 다정한 처녀였다.

처녀는 제가 영실을 남달리 사모하며 따르게 된것이 언제부터인지는 딱히 알지 못했다.

어릴적 바다가 모래밭에서 뛰놀 때부터 그들은 다정한 사이였다.

철이 들었을적에는 어느덧

힘을 느꼈으며 사랑의 자유조차 없는 종의 쓰디쓴 설움을 맛보았다.

영실은 한양대궐로 온 후에도 밤마다 천리 먼곳에서 울려오는 처녀의 구슬픈 호느낌소리를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관노의 신분으로 장가를 들어 불쌍한 종자식의 죄 많은 아버지가 필마에는 과학기술에 한생을 바쳐 임금의 은혜에 보답하는것이 더 멋있리라

사랑가 가정도 다 버리고 한생을 바치기로 각오하고있었습니다. 한때 그토록 모질게 마음의 상처를 건드려놓을까닭은 무엇이옵니까. 소인은 이미 정교한 기계를 만드는것만 락으로 삼을뿐 다른 락은 바라지도 아니하는바운데 그 이상 무엇을 더 요구하옵니까?

영실은 이상하게 울리는 제 목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라 잠을 깨었다.

누운채로 고개를 돌려 동창을 바라보니 벌써 해가 높이 떠오른듯 방안에 홀더리는 한줄기 눈부신 빛이 보이었다.

잠간 눈을 비빈 그는 몸을 일으켜 두팔로 무릎을 그려 안고 앉았다.

그러자 불시에 한없는 고독감이 엄습하였다.

어린 일인지 문득 옥섬이가 자기보다 더 가슴쓰린 원망을 안고 살고있으리라는 생각이 그의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10년세월이 흘렀으니 옥섬이도 이제 30나이를 넘겼을 것이다.

《제발 더는 이 못난 놈을 기다리지 마요. 옥섬이가 내내 원망을 품고 기다린다면 이 영실의 죄는 셋을 길지 않소. 나는 임금에게 바쳐진 몸이니 더는 찾지 마요. 기다리지도 찾지도 마요.》

영실은 머리를 세차게 흔들며 입속으로 중얼거렸다. 잠을 펼친 그는 부석부석해진 눈으로 천정 환골에 드러온 거미줄을 명하니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은 몹시 흐리고 무거웠다.



남모르는 사랑의 불꽃이 두 청춘의 가슴속에서 움터었다. 조용하고 내성적이며 사색을 즐기는 영실과 보다 활동적이 고 열렬한 옥섬의 사랑은 세월의 흐름속에 깊어갔다.

하지만 그 뜨거운 사랑의 행복은 너무도 짧았다. 영실은 임금의 부름을 받고 집을 떠나게 되었을 때 불행속에 자리잡은 사랑의 고통을 새로이 깨달았다.

기약도 없는 리별의 순간에 그는 불가사의한 운명의

고 생각하였다.

피눈물을 삼키고 몸부림을 치가며 옥섬의 그 애절한 호느낌소리를 잊으려고 했다. 그렇게 어린 10년이 흘러갔다.

그런데 오늘 우연히 임금이 그의 이 아픈 마음의 상처를 건드려놓은것이였다. 그는 고달픈 악몽에 허덕이면서도 임금을 원망하였다.

《아, 너무오이다.》 하고 그는 피타게 부르짖었다. 《소인은 임금님을 위해